

2024년 군포시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2024. 12.

군포시 가족센터

< 목차 >

I. 서론	1
II. 군포시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개요	3
1. 조사 개요	3
2. 조사 내용	4
3. 분석 방법	5
III. 군포시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	6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
2. 가족센터 이용 경험	17
3. 가족센터 장기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25
4. 가족생활 만족도	35
5. 군포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요구도	45
IV. 결론	59
1. 조사 결과 요약	59
2. 센터 운영을 위한 제언	64

I. 서 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및 동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군포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기 시점인 2006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가족 서비스의 개념이 희소하던 지역사회에 선두적인 원스탑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보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위치를 점하여 왔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방과 더불어 가족 관계향상, 역할지원, 의사 소통방법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가족의 유형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지역사회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지속으로 2021년 다문화 정책대상 여성가족부장관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2020년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2013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사업 공모 "가족세우기" 우수상 수상 등으로 그 성과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지역사회 내 가족센터는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의 정책적 흐름을 따르면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책적 욕구를 수렴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구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족정책과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시민들의 가족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시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

하며,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모색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포시 가족센터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경험과 추후 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기획하였고, 조사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가족센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군포시 가족센터의 미션을 수행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선도하는 군포시민의 가족복지파트너’라는 기관의 비전 달성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구현으로 복지의 체감도를 높여주는 구체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본 조사 분석과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군포시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가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센터의 이용 경험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자는 2024년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센터 이용자 및 비이용자가 모두 포함되도록 설계하였다.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기 위하여 10대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인가구,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30~40대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계획하였다.

< 표 II-1 > 군포시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개요

항목	내용
조사 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조사
조사 대상	2024년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 750명 목표 최종 분석 응답자 651명
조사 시기	2024년 3 ~ 8월
통계 분석	IBM SPSS Statistics Ver.20을 사용한 기술통계 분석, t-test, ANOVA 등

본 조사는 대면 조사 방법과 자기 기입식의 조사를 병행하였다. 센터 이용자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 시에 담당 직원의 대면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센터 비이용자의 경우 자기 기입식의 조사로 이루어졌다. 센터 비이용자의 경우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 군포늘푸

른노인복지관 등에 설문 협조를 요청하여 기관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지역축제 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2024년 3월부터 12월에 걸쳐 장기간 수행되었는데 총 75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부실기재된 응답지를 모두 제외하고 총 651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 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영역 및 변수는 < 표 II-2 >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조사하였는데, 변인 중 거주 지역은 직접 살고 있는 곳을 기술하게 하였다.

< 표 II-2 > 군포시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내용

항목	내용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태어난 곳의 국적, 군포시 거주기간, 혼인 상태, 학력, 자녀 수, 경제활동상태, 가족 유형, 주택 형태
가족센터 이용 경험	가족센터 이용 경험 유무, 이용 경로, 프로그램 이용 경험, 이용 기간, 센터 지속 이용 사유, 센터가 보완해야 할 사항, 센터 미이용 사유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 만족도, 가족 내 성역할 만족도, 일-가정-개인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요구도	결혼준비 및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영유아 양육 관련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자녀 관련 프로그램, 중·장·노년기 프로그램, 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취약위기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요구도

조사 내용 중 경제활동 상태는 ① 남편 또는 아내만 경제활동, ② 부부 모두 경제활동, ③ 기타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족 유형은 ① 부부가족, ②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③ 한부모 가족, ④ 조손가족, ⑤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 ⑥ 독신(1인가구), ⑦ 기타 중 선택하게 하였다.

가족센터 이용 경험은 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 이용 기간, 센터를 계속 이용하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센터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가족생활 만족도는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부터 가족여가활동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답자가 느끼는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만족함’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가족센터 프로그램 요구도에서는 가족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의 세부 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등과 같이 가족의 유형을 반영한 프로그램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 요구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필요함’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조사에서는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빈도, 평균, 비율 등을 파악하였고, 분석이 가능한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중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t-test, ANOVA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자기 기입식 응답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여 일부 문항에서는 결측값이 상대적 많았고, 단일 문항 선택과 다중 응답 기입 방법 상에 혼돈을 지닌 응답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여 분석에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와 변수가 적지 않았다. 향후 조사에서는 보다 정밀한 대면 설문 조사를 통해 응답의 결측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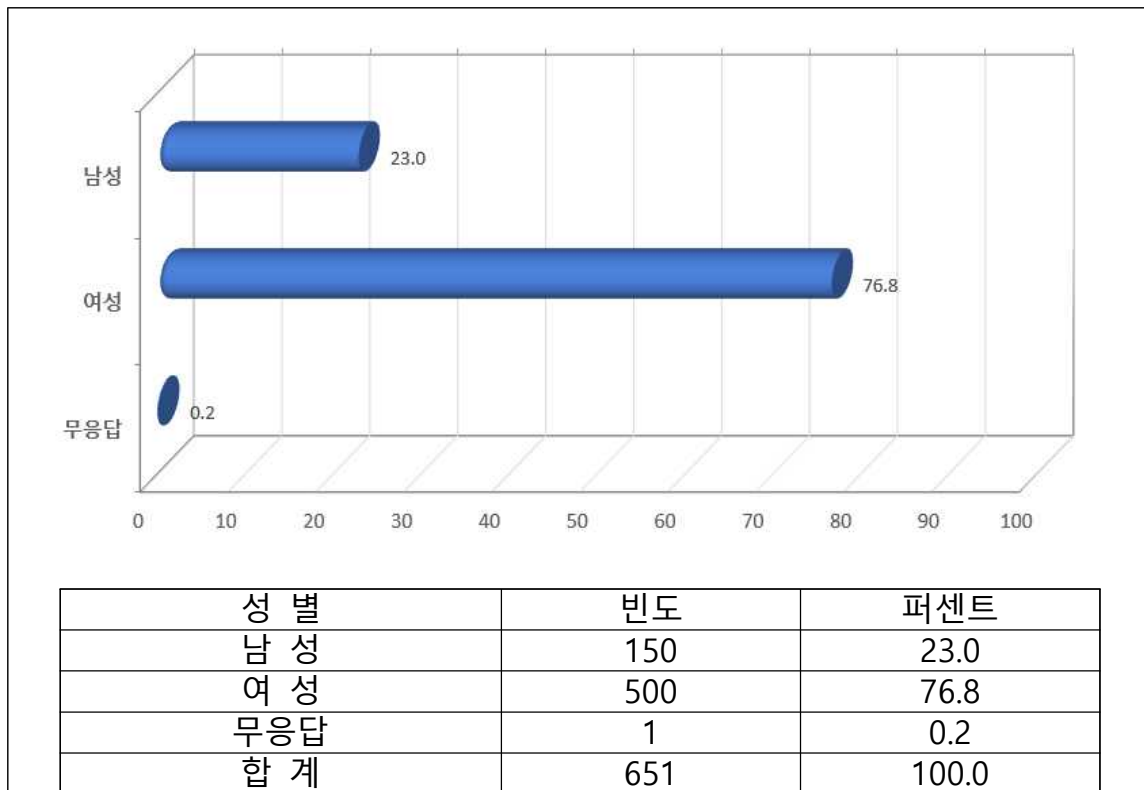
Ⅲ. 군포시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본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중 여성은 500명(76.8%)이었고, 남성은 150명(23%)으로 나타나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Ⅲ-1 > 조사 대상자의 성별



2) 연령

본 조사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38.1%로 가장 많았고, 30대(32.3%)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60대이상(12.9%), 50대(10.1%), 20

대(3.4%), 10대이하(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3.8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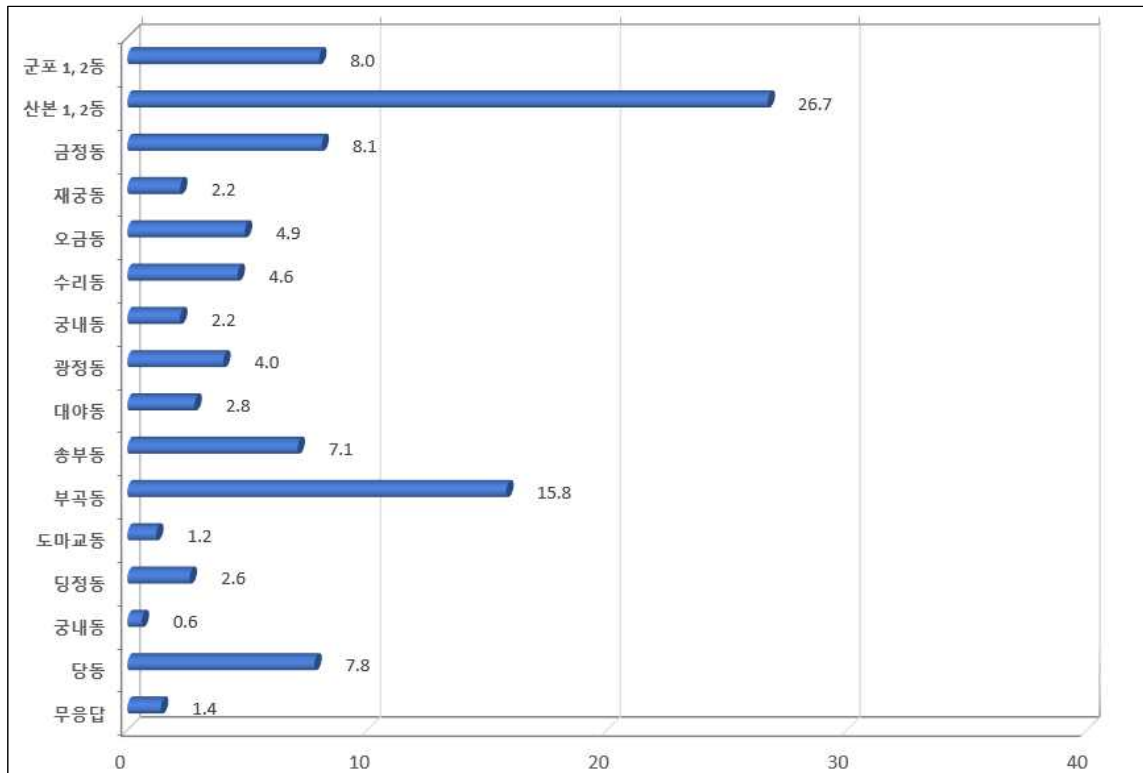
< Ⅲ-2 > 조사 대상자의 연령



3) 거주 지역

조사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산본 1,2동이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고, 부곡동 거주자가 15.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후로는 금정동(8.1%), 당동(7.8%), 송부동(7.1%) 순으로 나타났다. 동별 인구 수 및 센터의 접근성과 관련 있는 지역의 구성비가 많은 특성을 보였다.

< Ⅲ-3 > 거주지역



거주 지역	빈도	퍼센트
군포 1, 2동	52	8.0
산본 1, 2동	174	26.7
금정동	53	8.1
재궁동	14	2.2
오금동	32	4.9
수리동	30	4.6
궁내동	14	2.2
광정동	26	4.0
대야동	18	2.8
송부동	46	7.1
부곡동	103	15.8
도마교동	8	1.2
당정동	17	2.6
궁내동	4	0.6
당동	15	7.8
무응답	9	1.4
합계	615	100.0

4) 태어난 곳의 국적

응답자 중 다문화 가족원의 비중이 15.2%를 차지하였고, 비다문화 가족원이 83.7%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원 중에서는 중국 국적이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후로는 일본(3.8%), 베트남(3.2%), 기타(1.4%)의 순으로 나타났다.

< Ⅲ-4 > 태어난 곳의 국적



5) 군포시 거주기간

응답자들의 군포시 거주기간을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응답자가 45.2%로 가장 많았고, 5년이상 ~ 10년미만이라는 응답자가 23.8%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1년 미만 거주했다는 응답자가 4%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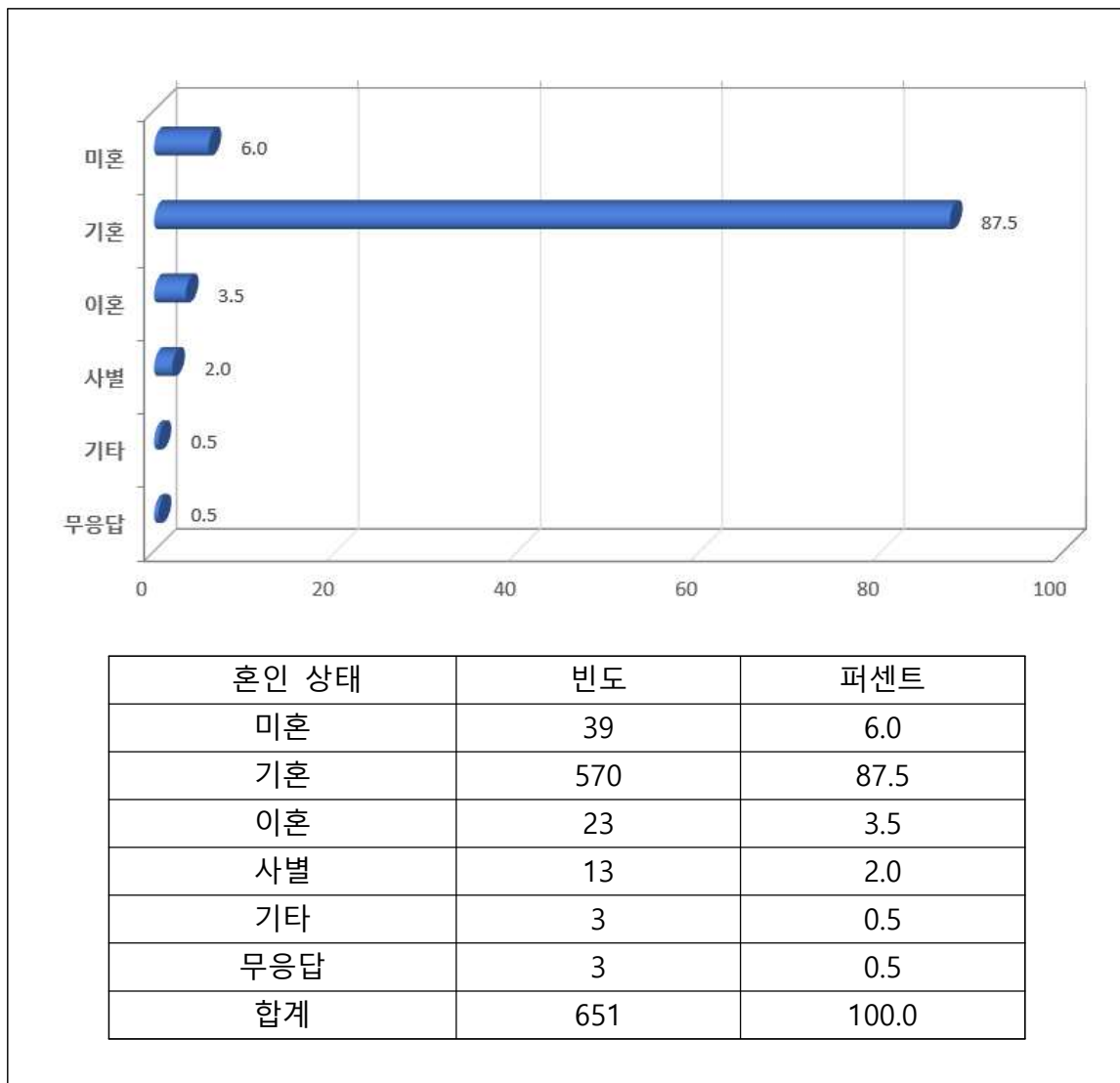
< Ⅲ-5 > 군포시 거주기간



6) 혼인 상태

조사 응답자의 대다수인 87.5%가 기혼자이며, 미혼인 경우가 6%를 차지하였다. 현재 이혼인 상태의 응답자는 3.5%였으며, 사별인 경우가 2%였다.

< Ⅲ-6 > 혼인 상태



7) 학력

응답자의 과반수인 70.3%의 응답자가 대학교 졸업자였으며, 21.7%가 고졸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2%는 석사학위 이상의 졸업자라고 기술하였다.

< Ⅲ-7 > 학력



8) 자녀 수

본 분석에 사용된 조사 대상자의 6.5%가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87.5%가 현재 기혼자였기 때문에 무자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명인 응답자가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녀가 1명이라는 응답자는 36.4%였으며, 3명이 5.5%, 4명은 1.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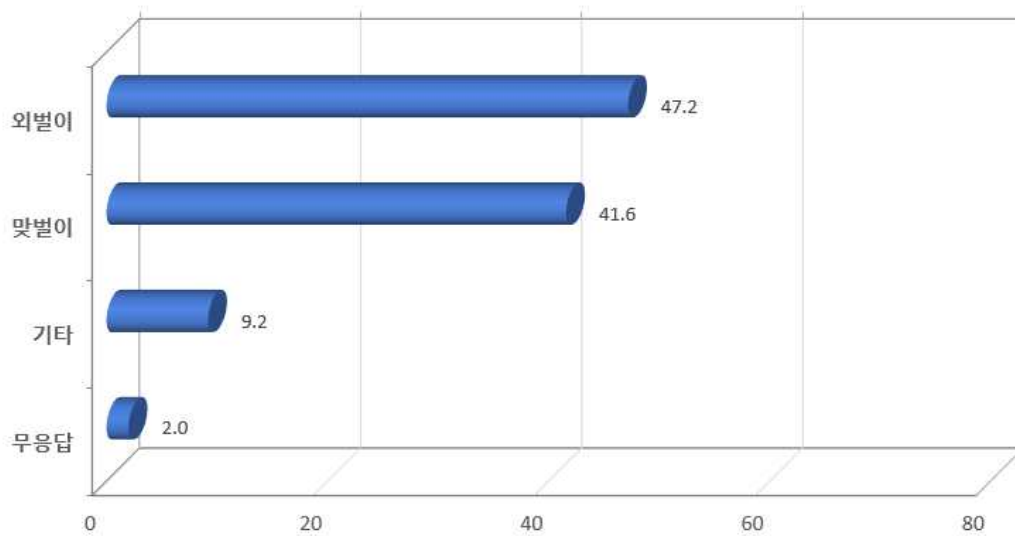
< Ⅲ-8 > 자녀 수



9) 경제활동상태

조사 대상자의 반 수에 가까운 47.2%가 외벌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는 전체 응답자의 41.6%에 해당하였고, 근로소득 없이 여타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기타 응답자는 9.2%로 나타났다.

< Ⅲ-9 >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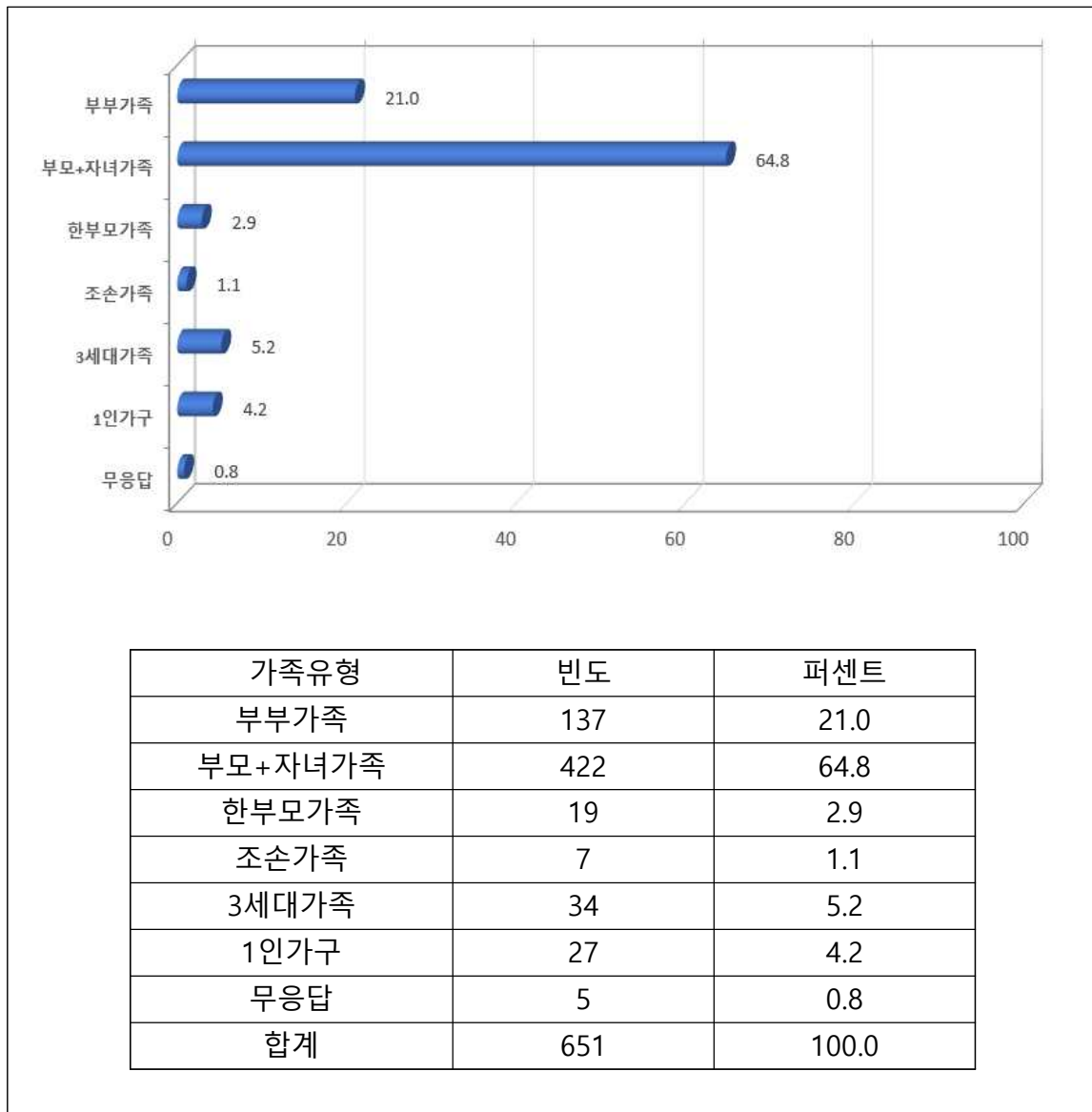


경제활동상태	빈도	퍼센트
외벌이	307	47.2
맞벌이	271	41.6
기타	60	9.2
무응답	13	2.0
합계	651	100.0

10) 가족 유형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인 64.8%의 응답자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가족 유형은 1세대로만 구성된 부부가족으로 전체 응답자의 21%를 차지하였다. 그 이후로는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3세대 확대가족 유형(5.2%), 1인가구(4.2%), 한부모가족(2.9%), 조손가족(1.1%)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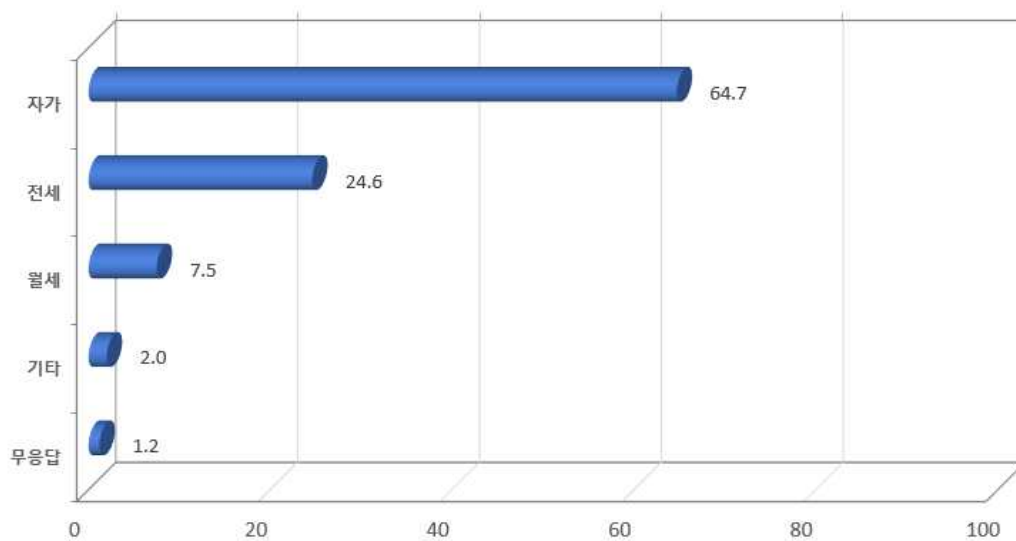
< Ⅲ-10 > 가족 유형



11) 주택 형태

응답자의 주택 형태를 살펴보면, 과반수가 자가(64.7%)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4.6%가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5%가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2%의 응답자가 기타로 분류되었다.

< Ⅲ-11 > 주택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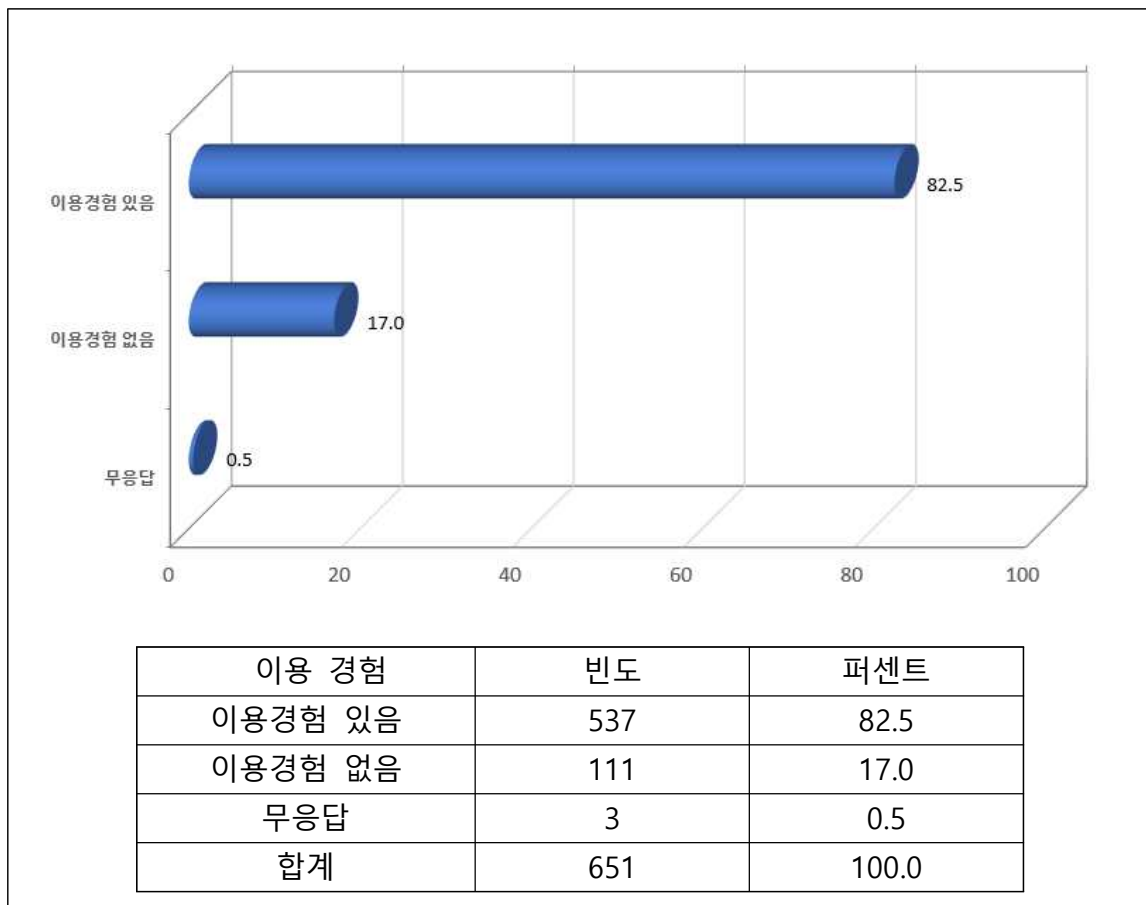
주택형태	빈도	퍼센트
자가	421	64.7
전세	160	24.6
월세	49	7.5
기타	13	2.0
무응답	8	1.2
합계	651	100.0

2. 가족센터 이용 경험

1) 가족센터 이용 경험 유무

분석에 사용된 총 응답자 651명 중 82.5%에 해당하는 응답자 537명이 군포시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17%에 해당하는 111명이 센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12 > 가족센터 이용 경험 유무



2) 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

센터의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37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된 동기(다중응답)를 분석한 결과, ‘필요에 의해 스스로’라는 응답이 1순위로 가장 많았으며(50.5%), ‘친구, 이웃 등 지인소개’에 의해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26.8%)이 2순위를 차지하였다.

< Ⅲ-13 > 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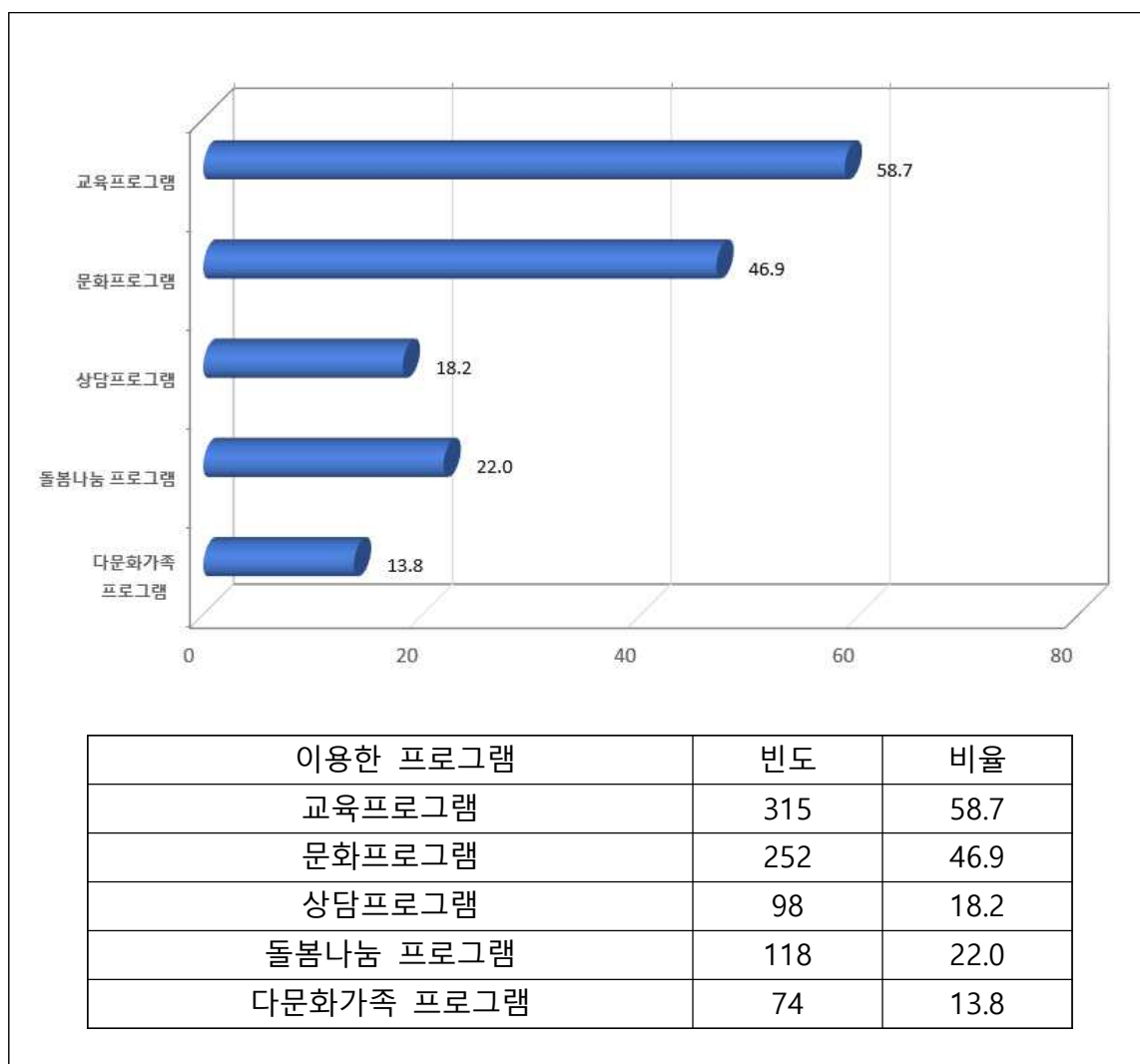
‘현수막, 홍보지, 캠페인 등’을 보고 센터의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8.8%였고, ‘SNS, 블로그 등’을 보고 찾았다는 응답자는 8.6%로 나

타나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홍보 효과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홍보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시청 등 공공기관의 권유’를 통해서 그리고 ‘신문기사, 방송,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센터를 찾게 되었다는 시민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노력 역시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3) 프로그램 이용 경험

< Ⅲ-14 > 프로그램 이용 경험



센터 이용자들이 경험한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58.7%)의 조사 대상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는 46.9%로 2순위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2%가 돌봄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문화 가족프로그램 참여했다는 응답은 13.8%였다. 한편 응답자의 18.2%가 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센터 이용기간

< Ⅲ-15 > 센터 이용기간



센터를 이용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7.6%로 가장 많았고, 1년이상 ~ 3년미만이라는 응답이 35.8%로 2순위였으며, 3년이상 ~ 5년미만(11.5%), 5년이상(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 이상이 센터 경험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센터는 신규 대상자 발굴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 5명 중 1명 이상은 센터를 3년 이상 장기 이용한 대상자임을 볼 때, 센터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연속 연계, 서비스 대상자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사업 운영이 매우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센터의 이용 대상자들이 신규 이용자 ~ 중장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적절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본 조사의 분석과 추론은 센터의 종합적인 기관 경영이 우수함을 시사한다.

5) 센터 지속 이용 사유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는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64.8%)으로 나타났다. 타 응답과는 비울적 격차가 벌어지는 현격한 응답율을 보여준다. 2순위는 ‘가족생활에 도움이 됨’(46.4%)이었고, 그 이후로는 ‘직원들이 친절함’(36.4%) ‘센터 이용이 편리함’(35.6%), ‘강사의 전문성’(33.5%), ‘타 기관 대비 프로그램 우수성’(3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하였고, 가족생활이 도움이 되며,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1, 2, 3순위의 응답은 가족센터의 기관 정체성과 서비스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순위와 응답임을 보여주고 있다. 군포시 가족센터의 서비스 제공이 가족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Ⅲ-16 > 센터 지속 이용 사유



6) 센터가 보완해야 할 사항

센터의 우수한 운영과 관리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1순위는 ‘프로그램의 다양화’(44.7%)로 나타나 좋은 서비스를 받았던 시민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의 접근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 센터 이용자들은 단기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중장기 이용자들로 남는 특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센터가 지속적으로 신규 프

< Ⅲ-17 > 센터가 보완해야 할 사항



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였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현재의 중장기 이용자와 센터에 신규 입문한 이용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센터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 2순위로는 ‘이용시간대 확장’(31.5%)을 꼽았다. 취업 상태 및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평일 밤 시간대 및 주말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욕구로 보인다. 참고로 본 조사 대상자 중 41.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맞벌이의 경제활동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조할 수 있다.

3순위로는 ‘프로그램 이용 시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14%)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를 둔 양육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12.8%), ‘교통 편리성 향상’(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센터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수월하게 지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과 교통 접근성의 편리성 향상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완을 원하는 많은 사항들이 사실은 예산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산의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과 집종의 논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 센터 미이용 사유

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조사 대상자들 11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프로그램이 ‘실시되는지 몰라서’(72.1%)였다. 다음으로는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6.3%),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정보가 부재해서 센터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시민들의 응답을 통해 센터가 앞으로도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앞에 제시한 센터 이용자들이 센터를 찾게 된 이유 중 적지 않은 비중이 센터의 홍보를 통해서였는데, 센터를 찾지 않은 이유 역시 홍보라는 점에서 볼 때 홍보는 언제나 중요한 사업의 도구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과 사업은 그 목적과 내용만큼 홍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인지해야 한다. 홍보는 아무리 노력하고 주력해도 과함이 없는 영역이다.

< Ⅲ-18 > 센터 미이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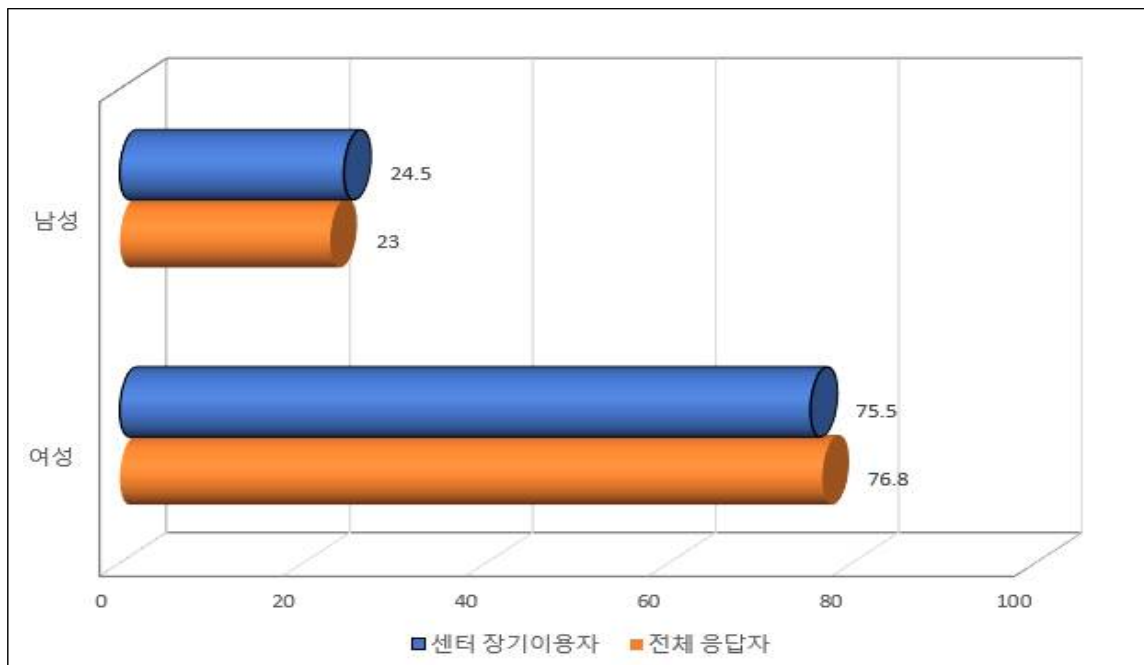
3. 가족센터 장기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총 응답자 651명 중 82.5%에 해당하는 응답자 537명이 군포시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을 가진 응답자들이었고, 가족센터를 3년 이상 이용한 응답자는 106명으로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약 20%에 해당하였다.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본 분석에 사용된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은 76.8%였고, 센터의 서비스를 3년 이상 이용한 장기 이용자 중 여성은 75.5%로 나타났다. 비율적 측면에서만 볼 때에는 성별에 따른 특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Ⅲ-19 > 센터 장기 이용자의 성별



2)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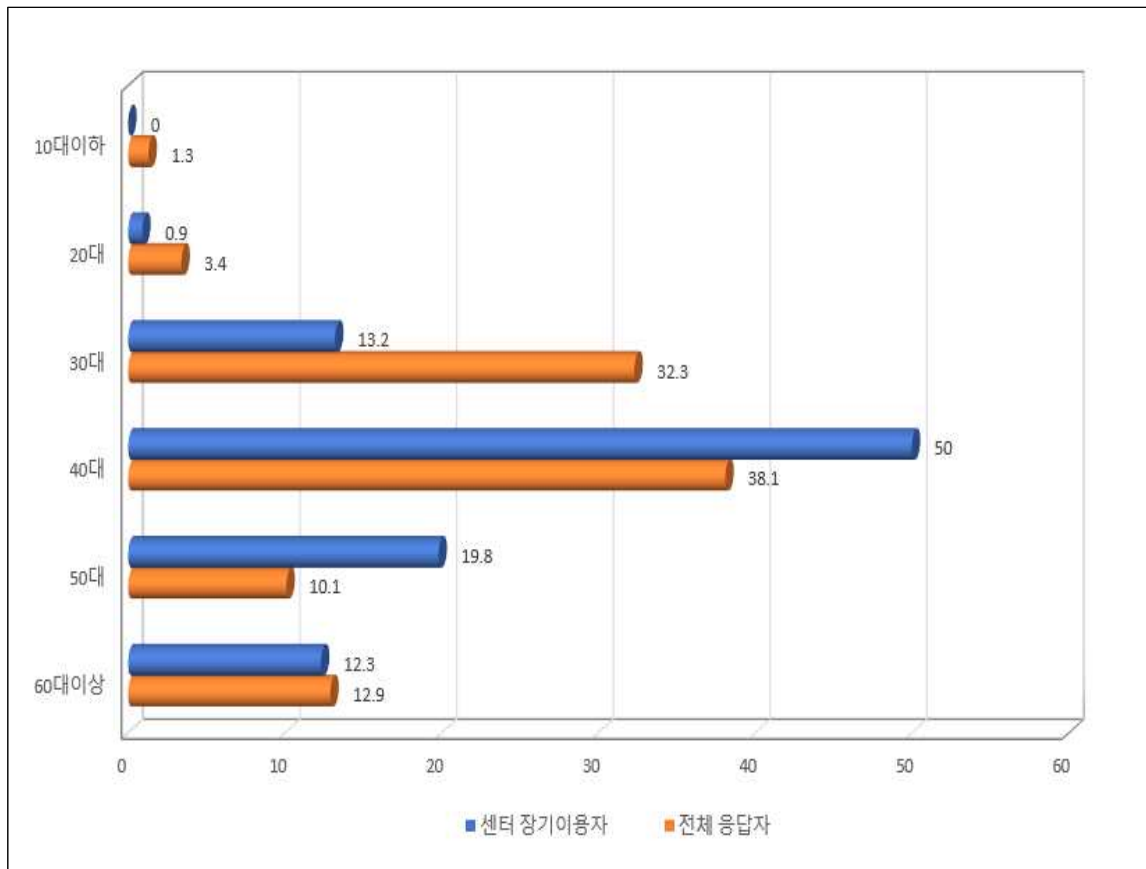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40대가 38.1%로 가장 많았고, 장기 이용자들의 연령 분포에서도 역시 40대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50%에 달하여 격차가 적지 않게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50대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10.1%에 그쳤으나 센터 장기 이용자 집단 안에서는 19.8%로 나타나 2배 가까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30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2.3%에 해당했으나 3년 이상 장기 이용자 집단 안에서는 13.2%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38.1%) > 30대(32.3%) > 60대이상(12.9%)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센터 장기 이용자의 경우 연령대가 40대(50%) > 50

대(19.8%) > 30대(13.2%)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40~50대 중장년층이 센터를 가장 많이 오래 이용한 연령대의 집단임을 보여준다. 센터는 이들의 향후 생애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하는 중장기적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자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46.8세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43.8세였으므로,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 Ⅲ-20 > 센터 장기 이용자의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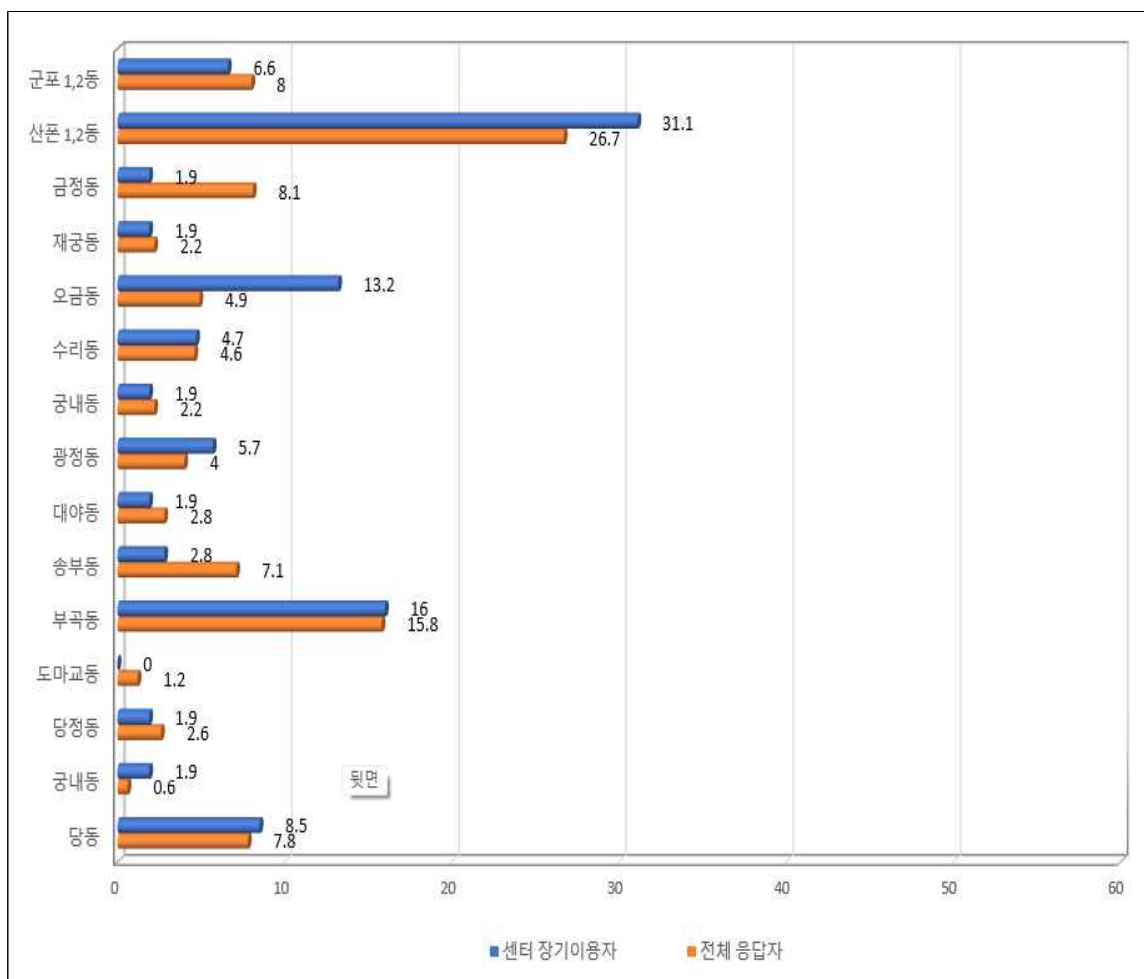


3) 거주 지역

센터의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받은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산본 1,2동에 31.1%가 거주하고 있었고, 부곡동(16%), 오금동(13.2%), 당동

(8.6%)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본 1,2동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장기 이용자가 많은 곳이기도 하였다. 한편 오금동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비중은 4.9%에 불과하였으나, 센터 장기 이용자 중에서는 이들 비중의 2배가 넘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이용도를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 시흥시 전역에 서비스가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III-21 > 센터 장기 이용자의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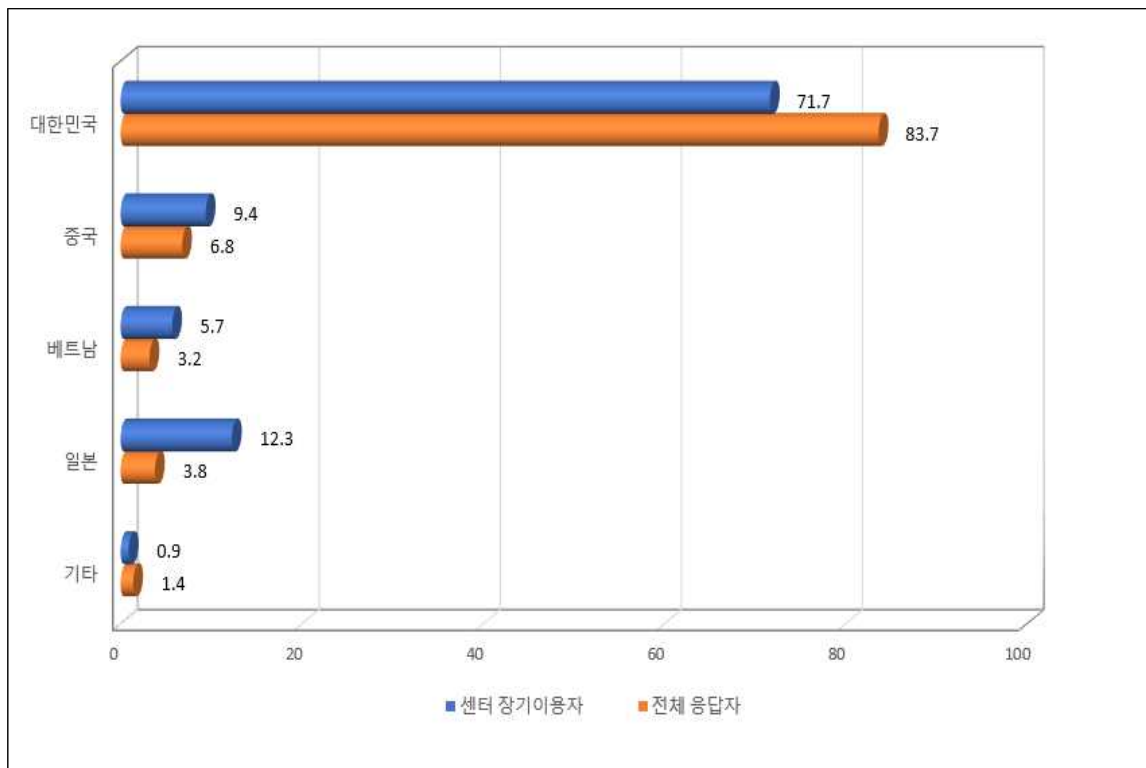


4) 태어난 곳의 국적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한 응답자의 28.3%는 다문화가족 응답자로 나타

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다문화가족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6.3%였으나 장기 이용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육박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비스를 경험한 다문화가족에게 심화되고 총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장기적인 이용자로 자리 매김한 것으로 보여진다.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 Ⅲ-22 > 센터 장기 이용자의 태어난 곳의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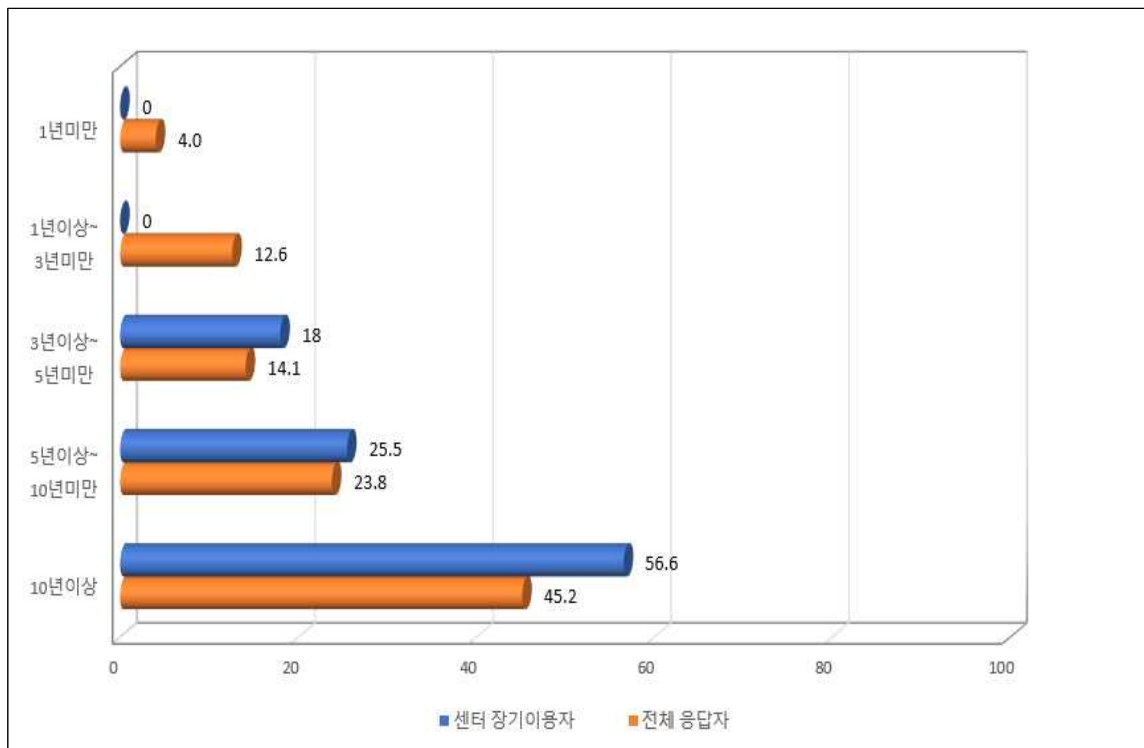
5) 군포시 거주기간

센터를 3년 이상 이용한 응답자들이므로 이들은 모두 군포시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을 넘는다.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과반수 (56.6%)가 군포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집단에서는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도 16.6%에 이르고 있어 군포시로 전입한 시민들의 가족센터 영입이 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군포시로 새로 이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이들을 수용하는 센터의 관리 기능은 매우 적절하고 우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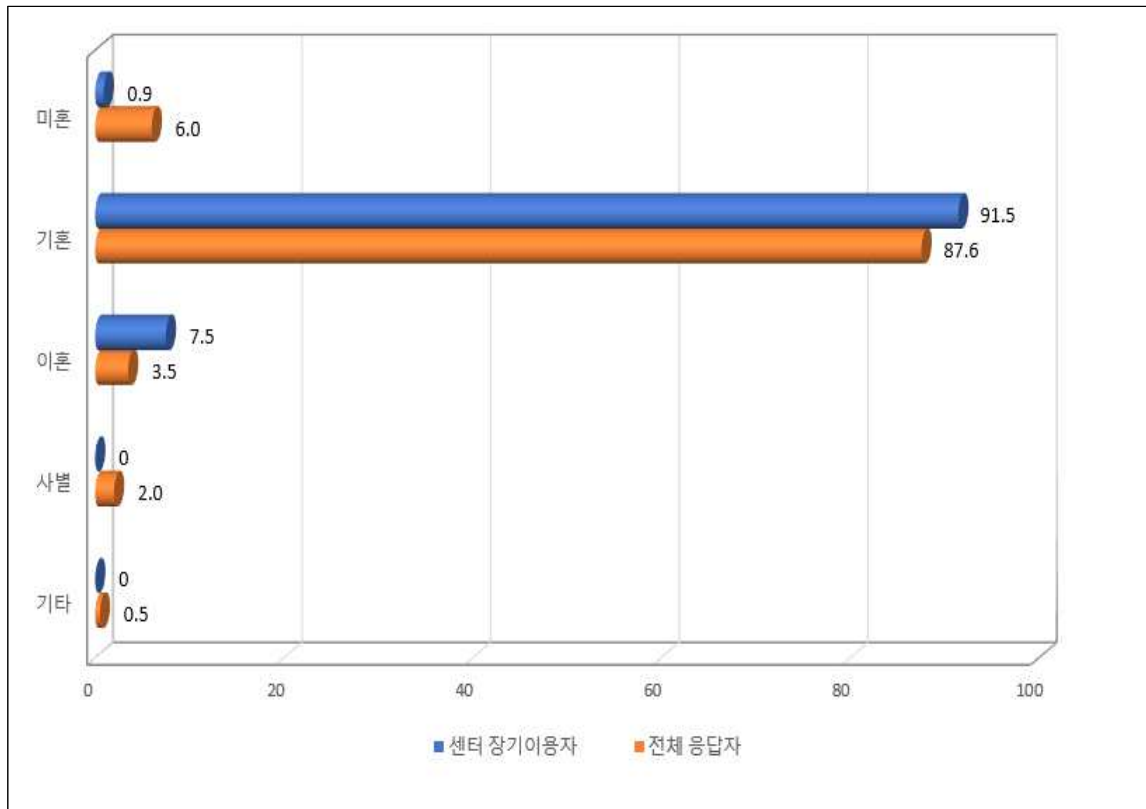
< Ⅲ-23 > 센터 장기 이용자의 군포시 거주기간



6) 혼인 상태

센터 장기 이용자의 대다수인 91.5%는 기혼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혼인 상태와 비교하여 볼 때, 미혼의 응답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가 미혼이었던 반면 센터를 장기 이용한 응답자 중 미혼은 1%도 되지 않았다. 미혼의 다수를 차지하는 1인가구 사업 혹은 가족 내 성인 자녀 대상 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향후 비혼 성인 및 1인가구를 겨냥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Ⅲ-24 > 센터 장기 이용자의 혼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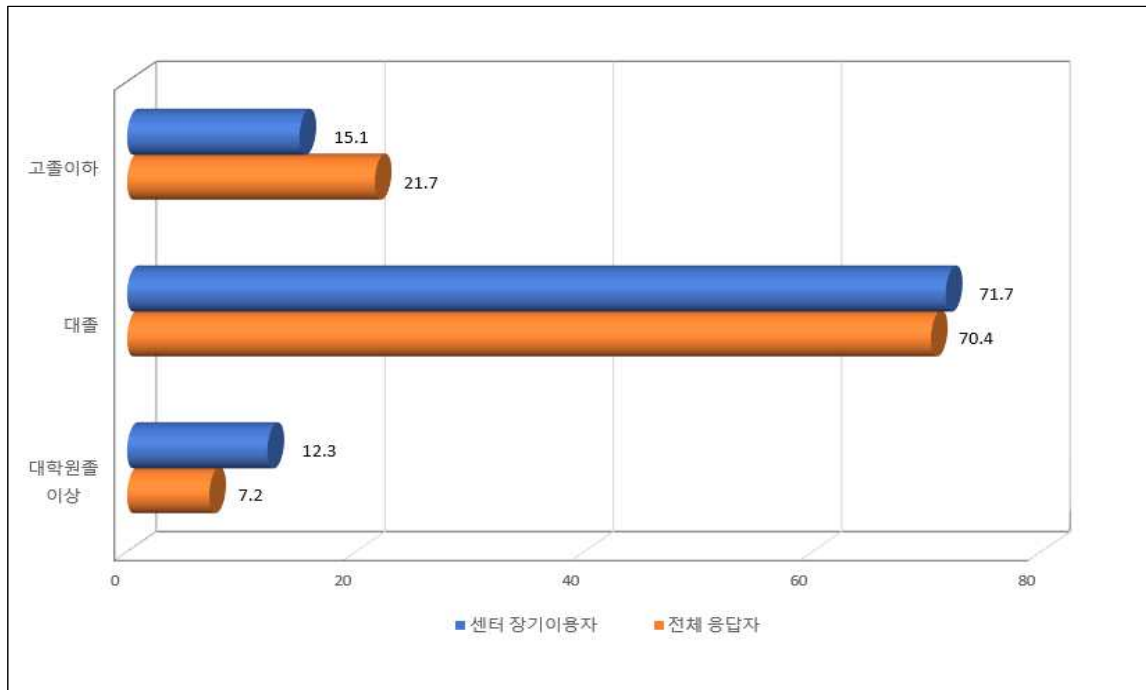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이혼의 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3.5%였으나 센터 장기 이용자 중에서는 2배 이상인 7.5% 응답자가 이혼의 상태였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서비스 제공에 있으므로 이혼 가족을 포괄하는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7)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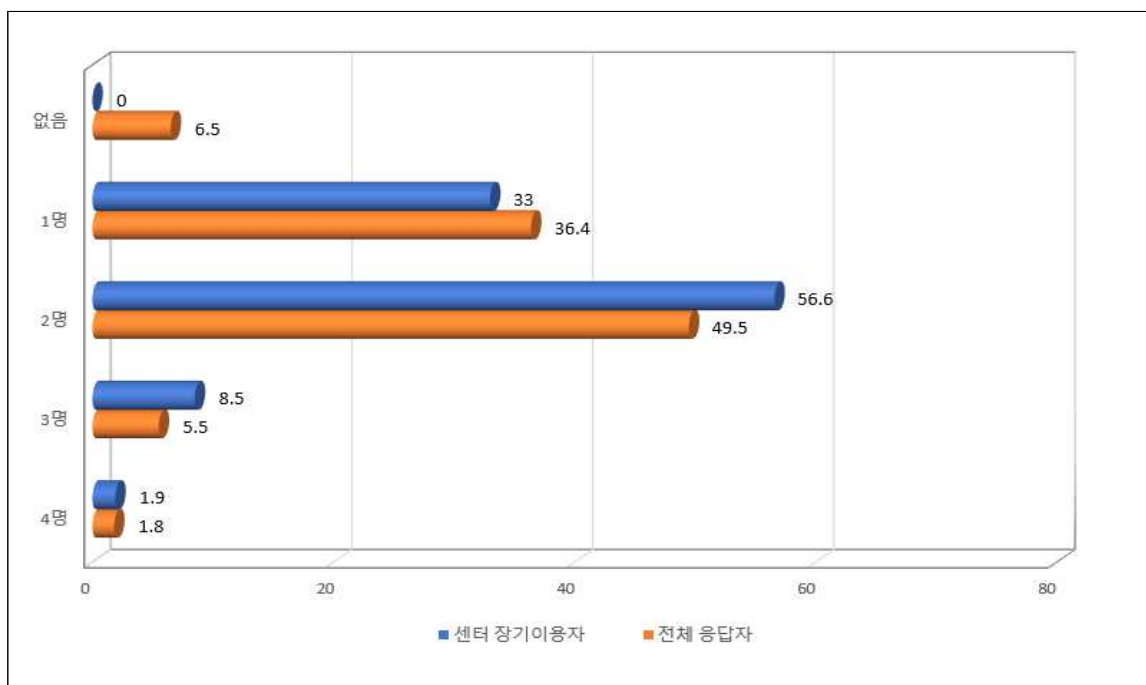
센터 장기 이용자의 15.1%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고, 대다수인 71.7%의 응답자가 대졸자였다. 응답자의 12.3%는 대학원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센터 장기 이용자의 학력은 전체 응답자와 비교하여 고졸 이하의 비율은 적었으며,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였다.

< Ⅲ-25 > 센터 장기 이용자의 학력



8) 자녀 수

< Ⅲ-26 > 센터 장기 이용자의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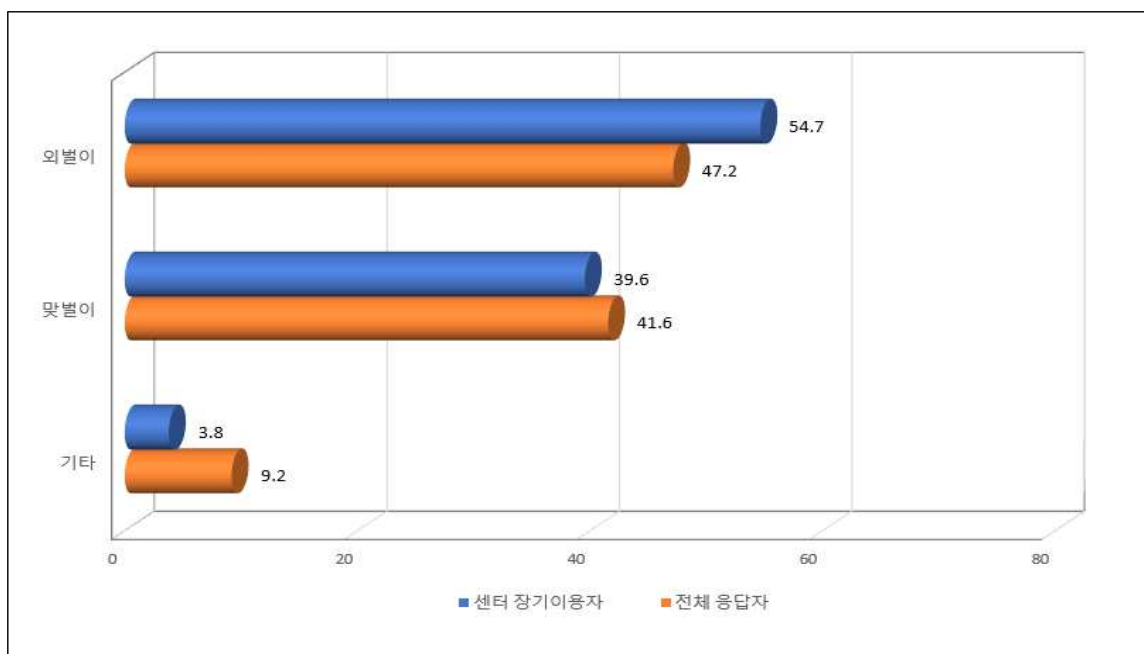
센터를 장기 이용한 사람들을 전체 응답자와 비교할 때,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56.8%였으나 장기 이용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67%에 이르고 있다.

장기 이용 응답자 중에 무자녀 가족은 없었다. 장기 이용 응답자의 사례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전형적인 특성 중 하나는 유자녀 가족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모-자녀 갈등, 의사소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의 상담, 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지속적인 장기 이용자가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9) 경제활동상태

센터를 장기 이용한 사람들의 과반수인 54.7%가 외벌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47.2%보다 많았다. 장기 이용자 중 맞벌이는 39.6%였고, 기타라고 응답한 비중은 3.8%였다.

< Ⅲ-27 > 센터 장기 이용자의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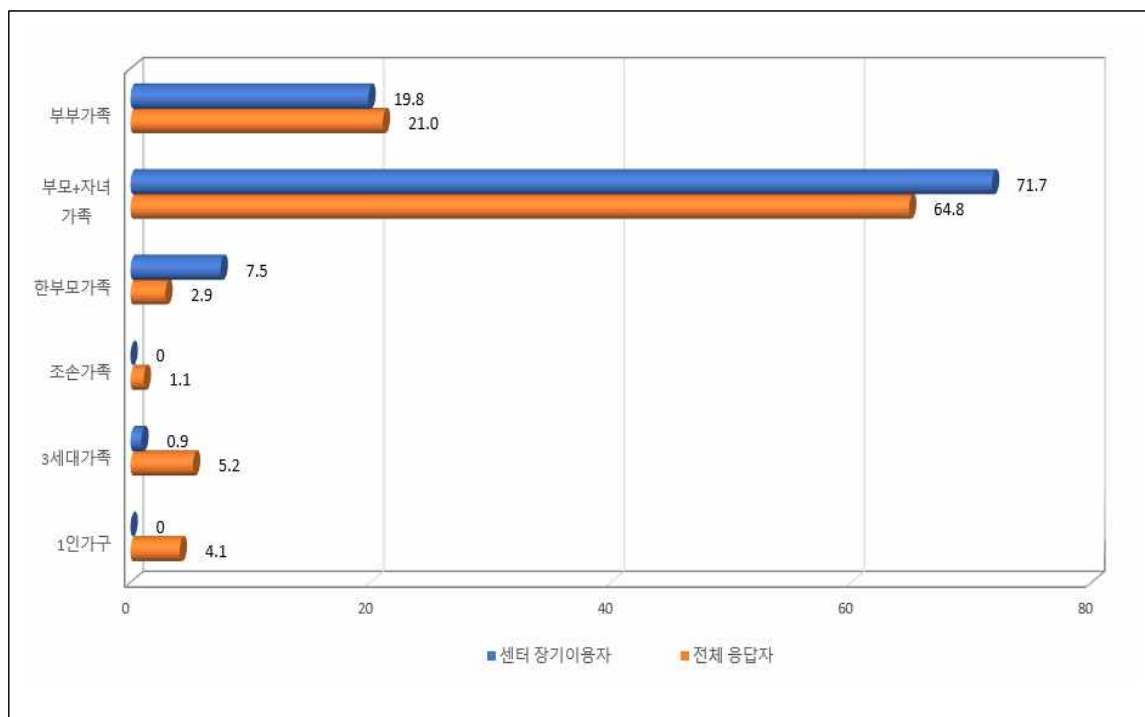


센터 장기 이용자 중 맞벌이의 비중이 40% 가까이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비롯하여 맞벌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평일 저녁 혹은 주말에 개설됨은 물론이고, 그 운영이 효과적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맞벌이들이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10) 가족 유형

센터를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71.7%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의 유형을 띄고 있었고, 19.8%는 부부가족이었다. 센터를 장기 이용한 응답자 중 7.5%는 한부모가족이었다.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진 한부모가족들이 센터의 서비스를 3년 이상 이용하면서 장기 이용자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경제활동과 양육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센터가 제공한 상담, 체험, 교육,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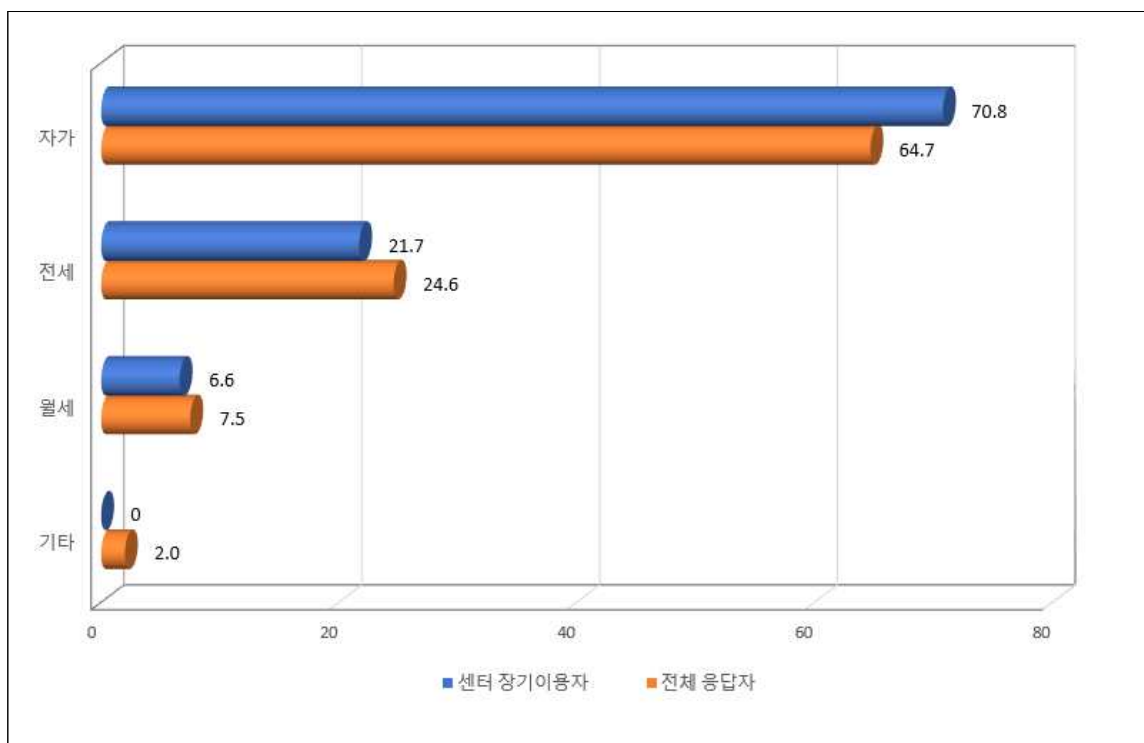
< III-28 > 센터 장기 이용자의 가족 유형



11) 주택 형태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한 응답자들의 주택 형태를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 볼 때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70.8%로 나타났다. 비 자가에 거주하는 비중은 전체 응답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 형태는 전체 응답자 대비 센터 장기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었다.

< Ⅲ-29 > 센터 장기 이용자의 주택 형태



4.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 서비스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생활 전반, 배우자, 가족 내 성역할, 일-가정-개인의 균형, 가족여가활동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만족함’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진다.

1)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가족유형에 따라 분석하였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가족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의 경우 4.32점, 여성은 4.15점으로 나타나 남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들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10대의 만족도는 3.57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이상(3.76점), 30대(4.24점), 40대(4.25점), 50대(4.27점), 20대(4.4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평균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사후 검증에서는 10대+60대이상의 집단과 그 나머지 집단(20+30+40+50대)으로 2분되는 성향을 보였다. 연령이 가장 낮은 청소년 집단과 연령이 가장 높은 노인 집단에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이들 집단은 타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001$), 맞벌이 가족인 경우 만족도가 4.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벌이(4.10점), 기타(3.9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벌이와 기타의 집단이 동질성을 보였고, 맞벌이는 이들 두 집단과 이질성을 보였다.

가족유형이 조손가족인 경우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57점으로 가족의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1인가구(3.79점), 한부모가족(4.0점), 3세대가족(4.09점), 부부가족(4.17점), 부모+자녀 가족(4.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족유형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p<.05$), 집단의 성향에서는 조손가족이 부부가족 및 부모+자녀 가족과 차별화되는 이질성을 보였다.

< Ⅲ-30 > 가족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t/F	Duncan
성별	남성	143	4.32	0.801	5.087 *	-
	여성	486	4.15	0.823		
연령대	10대이하	7	3.57	1.397	6.117 ***	a
	20대	22	4.41	0.666		b
	30대	206	4.24	0.758		b
	40대	246	4.25	0.852		b
	50대	62	4.27	0.728		b
	60대이상	74	3.76	0.737		a
경제 활동	외벌이	304	4.10	0.856	9.299 ***	a
	맞벌이	264	4.34	0.733		b
	기타	51	3.92	0.845		a
가족 유형	부부가족	133	4.17	0.812	2.265 *	b
	부모+자녀가족	416	4.24	0.811		b
	한부모가족	17	4.00	1.173		a b
	조손가족	7	3.57	0.535		a
	3세대가족	34	4.09	0.866		a b
	1인가구	19	3.79	0.631		a b

2) 배우자 만족도

가족유형 중 부부가족, 부모+자녀 가족, 3세대가족만을 따로 케이스 선택하여 배우자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배우자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였는데($p<.001$), 남성의 만족도가 4.42점으로 여성의 만족도 4.12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도 통계적인 차이($p<.001$)를 보였는데, 60대이하(3.66점), 50대(4.12점), 40대(4.24점), 30대(4.27점), 20대(4.50점)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배우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향을 보였다. 이들 연령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사후검증으로 살펴보면, 60대이상의 집단과 20대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통계적 이질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배우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맞벌이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 만족도는 4.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벌이(4.08점), 기타(3.75점)의 순으로 낮았으며, 이들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맞벌이 집단과 외벌이 집단이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기타의 집단만 따로 분리되는 이질성을 보였다.

배우자 만족도는 가족유형 중 부부가족, 부모+자녀 가족, 3세대가족만을 따로 케이스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이들 3개의 가족유형에 따라 배우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배우자 만족도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현재 시점에 자녀 없이 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자녀 및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 만족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부부 당사자 간의 관계 만족도는 함께 살고 있는 자녀 및 노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집단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강한 영향력은 아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Ⅲ-31 > 배우자 만족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t/F	Duncan
성별	남성	132	4.42	0.752	11.302 **	-
	여성	446	4.12	0.923		
연령대	20대	14	4.50	0.650	4.966 ***	b
	30대	199	4.27	0.789		a b
	40대	239	4.24	0.911		a b
	50대	58	4.12	1.027		a b
	60대이상	56	3.66	0.940		a
경제 활동	외벌이	288	4.08	0.950	9.068 ***	b
	맞벌이	260	4.34	0.782		b
	기타	24	3.75	1.073		a
가족 유형	부부가족	133	4.17	0.866	0.030	-
	부모+자녀가족	411	4.19	0.905		
	3세대가족	34	4.21	0.914		

3) 가족 내 성역할 만족도

가족유형 중 부부가족, 부모+자녀 가족, 3세대가족만을 따로 케이스 선택하여 성역할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성역할 만족도는 4.32점인 반면 여성은 3.98점으로 남성이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았고($p<.001$),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성역할 만족

< Ⅲ-32 > 가족 내 성역할 만족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t/F	Duncan
성별	남성	134	4.32	0.791	13.652 ***	-
	여성	447	3.98	0.992		
연령대	20대	18	4.61	0.698	2.752 *	b
	30대	200	4.08	0.907		a b
	40대	236	4.09	1.017		a b
	50대	58	3.97	0.858		a
	60대이상	55	3.75	0.947		a
경제 활동	외벌이	285	3.91	1.026	5.703 **	-
	맞벌이	260	4.18	0.868		
	기타	28	4.14	0.932		
가족 유형	부부가족	130	4.08	0.907	0.300	-
	부모+자녀가족	417	4.06	0.975		
	3세대가족	34	3.94	0.983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05$). 사후검증 결과 50대 집단과 60대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인 이질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 집단과 20대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대 집단의 성역할 만족도는 4.61점으로 가장 높으면서 50~60대 집단과 차별화되는 평균의 특성을 보였다.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맞벌이인 경우 성역할 만족도 점수가 4.18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4.14점), 외벌이(3.91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평균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였다($p<.01$). 외벌이의 가계 특성을 갖는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따라 남성이 시장노동을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

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가족 내 성역할 만족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예상할 수 있다. 사후 검증에서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케이스 선택한 부부가족, 부모+자녀 가족, 3세대가족의 가족 유형에 따라 성역할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적 성향, 태도, 행동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수행이 현재 살고 있는 가족 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배우자 만족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평균점만을 살펴본다면, 3세대 가족의 성역할 만족도가 3.9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일-가정-개인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

개인 응답자의 현재 취업 상태를 보여주는 개인 변수가 없었으므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케이스를 선택하여 일-가정-개인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대만이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에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26점으로 여성(4.04)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집단이 평균 3.92점을 보였고, 40대 4.29점, 50대 3.91점, 60대이상 4.22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4.0세, 여성이 31.5세인 점을 감안할 때, 출산과 육아가 본격화되는 30대에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30대에 저조한 만족도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40대에 증가하는 것으로 유추되며 50대에 감소했다가 다시 60대 이상에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40대 맞벌이 가족원의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러한 만족도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였다.

응답자 중 맞벌이 가족만을 케이스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족유형은 부부가족, 부모+자녀 가족, 3세대가족만에 투입되었으며,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

미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는 가족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33 > 일·가정·개인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t/F	Duncan
성별	남성	62	4.26	0.788	2.818	-
	여성	203	4.04	0.903		
연령대	20대	0	-	-	3.774 *	-
	30대	104	3.92	1.002		
	40대	110	4.29	0.758		
	50대	35	3.91	0.818		
	60대이상	9	4.22	0.667		
가족 유형	부부가족	59	4.14	0.937	0.290	-
	부모+자녀가족	186	4.06	0.868		
	3세대가족	14	4.21	0.975		

5)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가족유형은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의 경우 대부분의 만족도에서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15점인 반면 여성 응답자의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3.93점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연령대별로는 10대이하의 만족도가 3.57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3.64

< Ⅲ-34 >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t/F	Duncan
성별	남성	140	4.15	0.822	6.592 *	-
	여성	482	3.93	0.936		
연령대	10대이하	7	3.57	1.397	2.794 *	-
	20대	22	4.05	0.899		
	30대	202	4.00	0.917		
	40대	243	4.06	0.932		
	50대	63	3.90	0.875		
	60대이상	72	3.64	0.788		
경제 활동	외벌이	303	3.89	0.958	9.479 ***	a
	맞벌이	261	4.15	0.838		b
	기타	48	3.63	0.937		c
가족 유형	부부가족	130	4.05	0.847	2.537 *	c
	부모+자녀가족	413	4.00	0.910		b c
	한부모가족	19	3.84	0.898		a b c
	조손가족	7	3.29	0.951		a
	3세대가족	33	3.85	1.149		a b c
	1인가구	17	3.41	0.939		a b

점) < 50대(3.90점) < 30대(4.0점) < 20대(4.05점) < 40대(4.06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5$). 10대는 연령적 특성과 학업 부담으로 인해 가족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60대이상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경제적 부담감, 가족 구성원의 동참 여부 등의 이유로 그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40대는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면서 동시에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은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2023년 현재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3.6세이므로 40대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양육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면서 학부모로 진입하는 연령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가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시기로 유추된다.

50대는 평균 출산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의 시기가 포함된 연령대로 가늠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학업 부담과 대학 진학을 위한 몰입으로 인해 가족여가활동이 저조한 시기로 유추되며, 만족도 역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타(3.63점), 외벌이(3.89점), 맞벌이(4.1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시간적 여유가 있는 외벌이의 가족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가족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가족여가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사후 검증 결과 이들 3개의 집단은 각자 고유의 특성을 보여, 집단 간 동질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조손가족의 가족여가활동 만족도가 3.29점으로 가장 낮았고, 1인가구(3.41점), 한부모가족(3.84점), 3세대가족(3.85점), 부모+자녀가족(4.0점), 부부가족(4.05점)의 순으로 높았다. 이들 가족유형은 가족여가활동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조손가족, 1인가구는 앞서 살펴본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단이었는데, 가족여가활동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부모+자녀 가족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가족여가활동 만족도에서는 부부가족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아마도 가족여가활동이 부족한 시기인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족이 부모+자녀 가족 안에 적지 않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족여가활동 만족도가 특히 낮았던 가족유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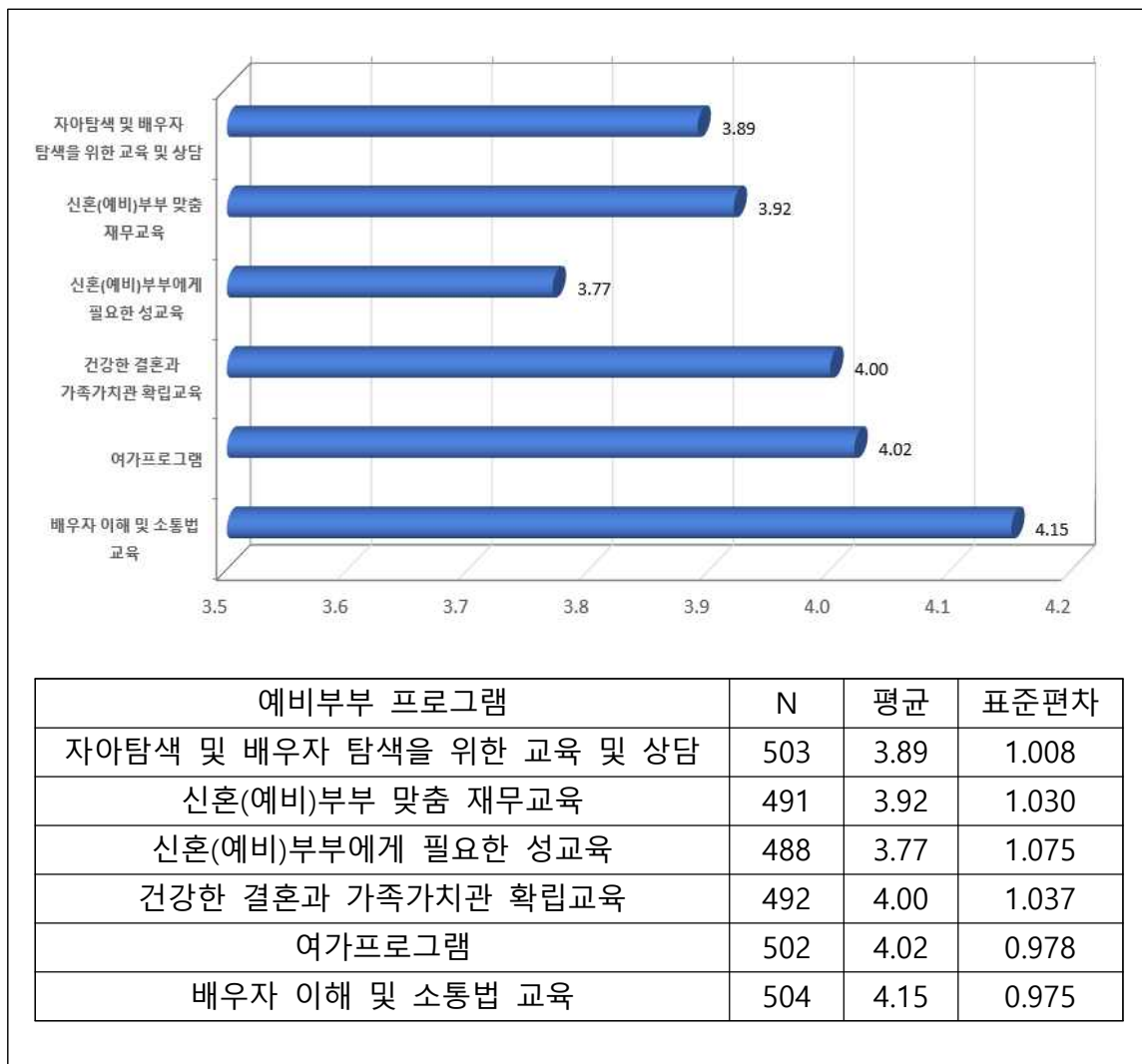
영이 필요하다.

5. 군포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요구도

1) 결혼준비 및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를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프로그램은 배우자 이해 및 소통법 교육(4.15점)

< Ⅲ-34 > 결혼준비 및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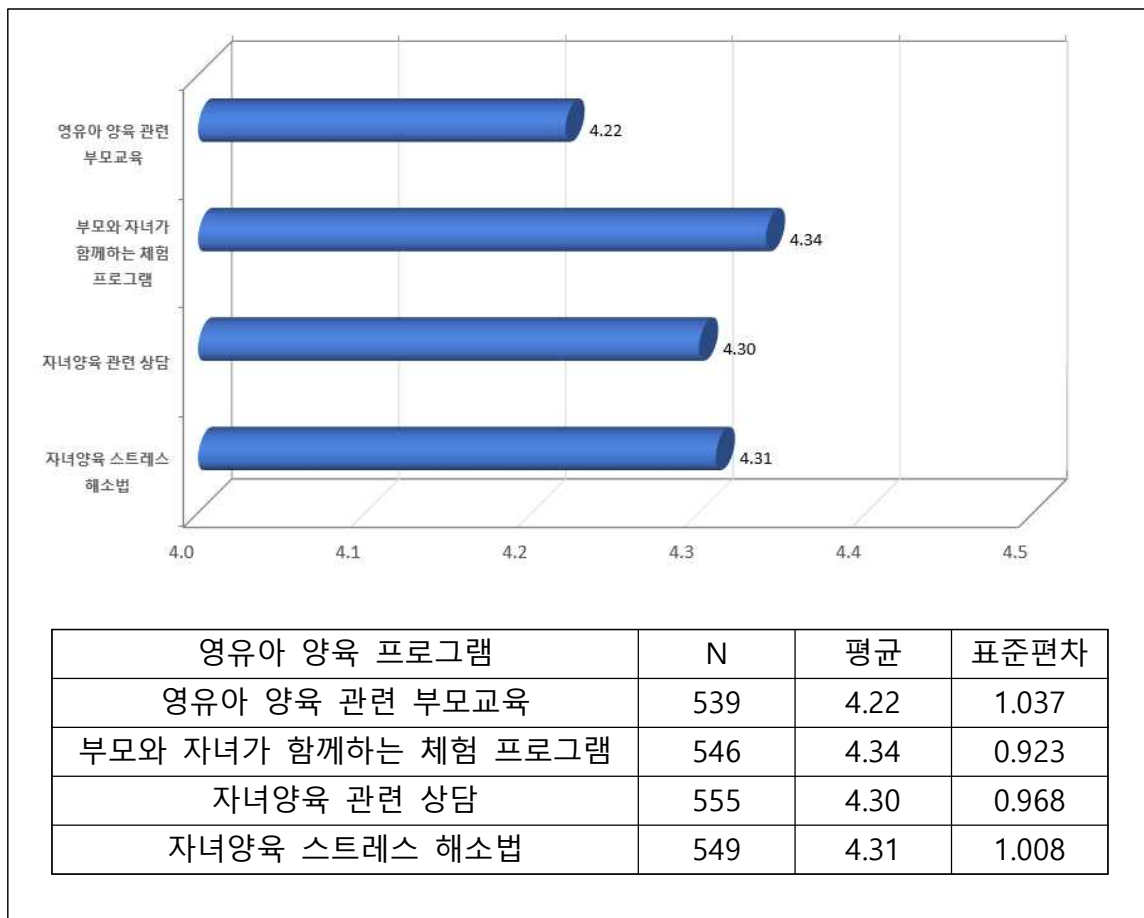


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는 생애주기 단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신혼부부가 이루어야 할 대표적인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여가 프로그램(4.02점), 건강한 결혼과 가족가치관 확립교육(4.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영유아 양육 관련 프로그램

영유아 양육 관련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4.34점)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취학 전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전인적 발달을 위해, 그리고 영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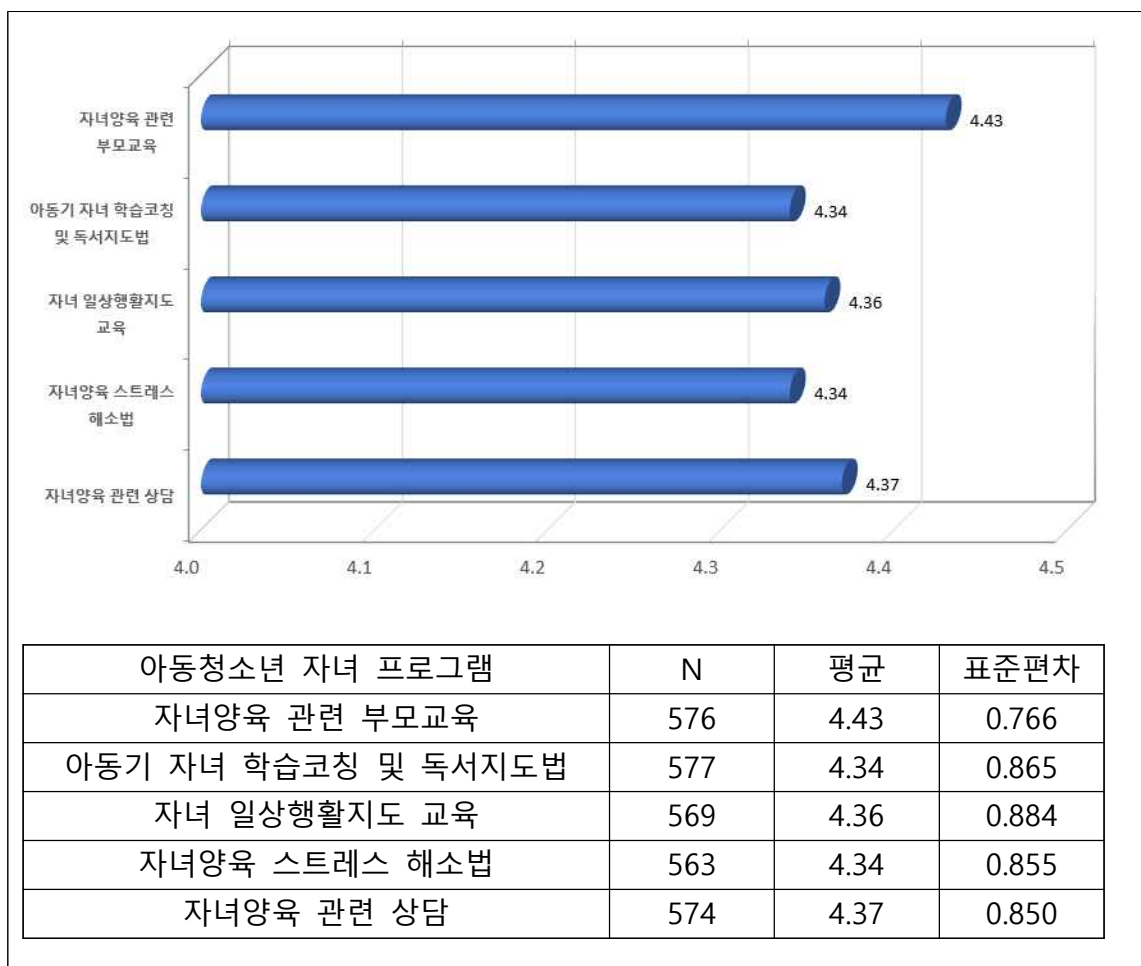
< Ⅲ-35 > 영유아 양육 관련 프로그램



베이비 요가, 오감놀이, 공예, 음악·미술놀이 등 사설 기관에서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므로, 가족센터 프로그램의 활용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해소법(4.31점), 자녀양육 관련 상담(4.30점)도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아동·청소년 자녀 관련 프로그램

< III-36 > 아동·청소년 자녀 관련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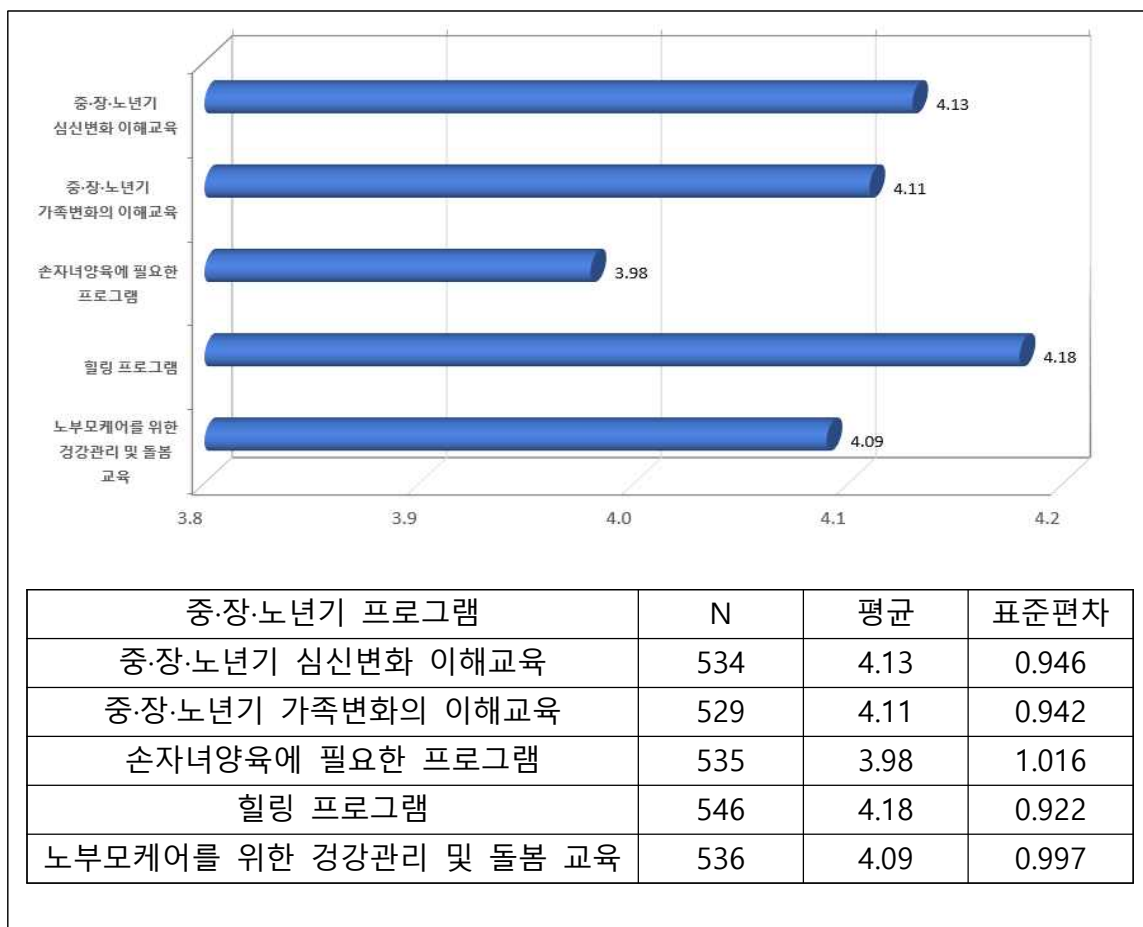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자녀양육 관련 부모교육(4.43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를 둔 시기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자녀가

아동·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청소년 자녀 관련 영역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4.3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훈육법이나 사춘기 지도를 위한 자녀 양육 관련 상담은 4.37점이었으며, 스마트폰 과다사용, 게임 과몰입, 미디어 및 온라인 중독 등과 관련된 자녀의 일상생활 지도 교육은 4.36점이었다.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은 어려워지고, 갈등이 내재하게 되며, 이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의 모색 등이 가족의 발달 과업이 되면서, 요구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분화됨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 단계에서 부모의 역할에 과부하가 올 수 있는 시기이다.

4) 중·장·노년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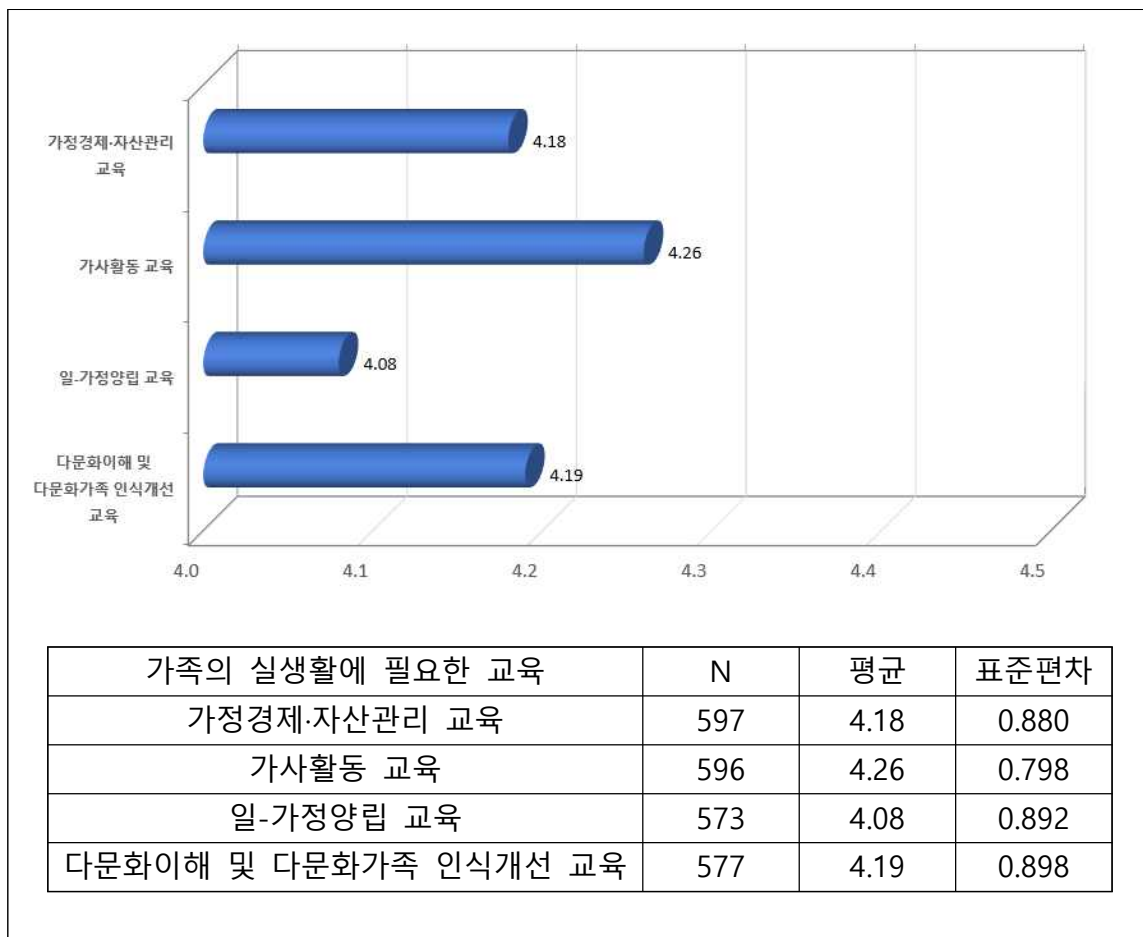
< Ⅲ-37 > 중·장·노년기 프로그램



중·장·노년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요리교실, 플라워 테라피, 문화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4.18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중·장년기 심신의 변화를 이해하는 교육(4.13점), 중·장년기 가족변화의 이해교육(4.1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 Ⅲ-38 > 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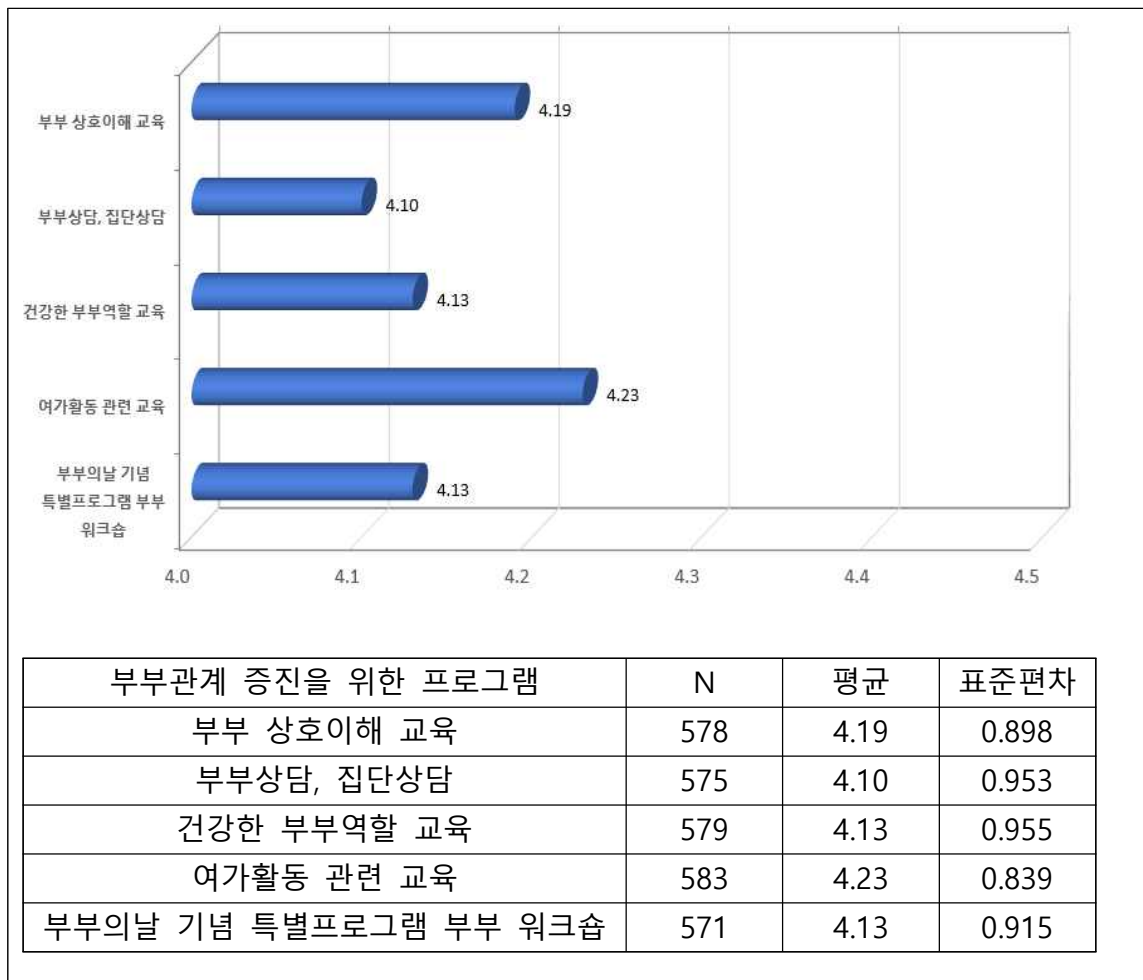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는 정리수납교육, 요리교실, 청소법 등과 같은 가사활동 관련 교육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경제·자산관리 교육이 4.18점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가정 양립교육(4.08점), 다문화이해 및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교육(4.01점)도 4점을 넘는 필

요성을 보였다.

6)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Ⅲ-39 >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부부사진 촬영 등과 같은 여가 활동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부 상호 이해 교육은 4.19점으로 2순위로 나타났고, 건강한 부부역할 관련 교육(4.13점)과 부부의 날 기념 특별프로그램 부부 워크숍(4.13점)에 대한 요구도가 동일한 점수로 3순위를 차지하였다.

7)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현재 군포 센터에서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높은 욕구를 보였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하는 연극·영화 관람 등의 문화활동(4.39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요리, 공예, 전래놀이 등과 같이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4.36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4.3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III-40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8)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 Ⅲ-41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전체 응답자)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응답자를 따로 케이스 선택하여 그 요구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전체 조사 대상자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세부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모두 4점을 넘지 못했지만 대부분 유사한 점수 분포로 4점에 근접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육(3.99점)이었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3.96점),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3.94점),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3.9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당사자 보다는 그들의 자녀 프로그램에 더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언어 발달, 교육, 진로 등에 지원 필요성을 보였다. 시민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위한 학습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Ⅲ-42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다문화가족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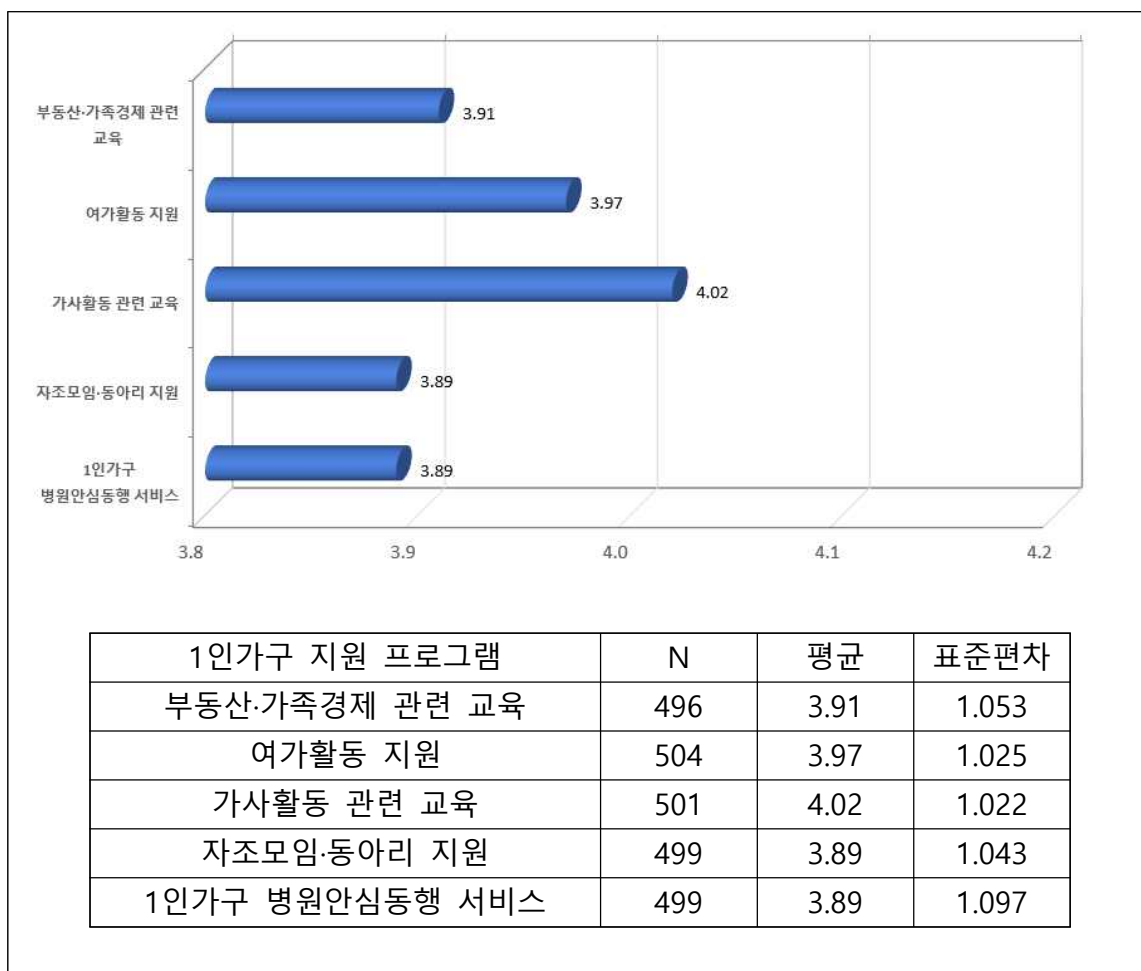


한편 다문화가족 응답자를 따로 케이스 선택하여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세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육(4.34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1순위 응답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순위는 결혼이민자 동아리, 자조모임 지원(4.32점)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가 낮은 순위를

주었던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가장 낮은 필요성을 보인 프로그램은 방문학습지, 교육활동비 지원 등과 같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으로 4.08점으로 나타났다.

9)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 Ⅲ-43 >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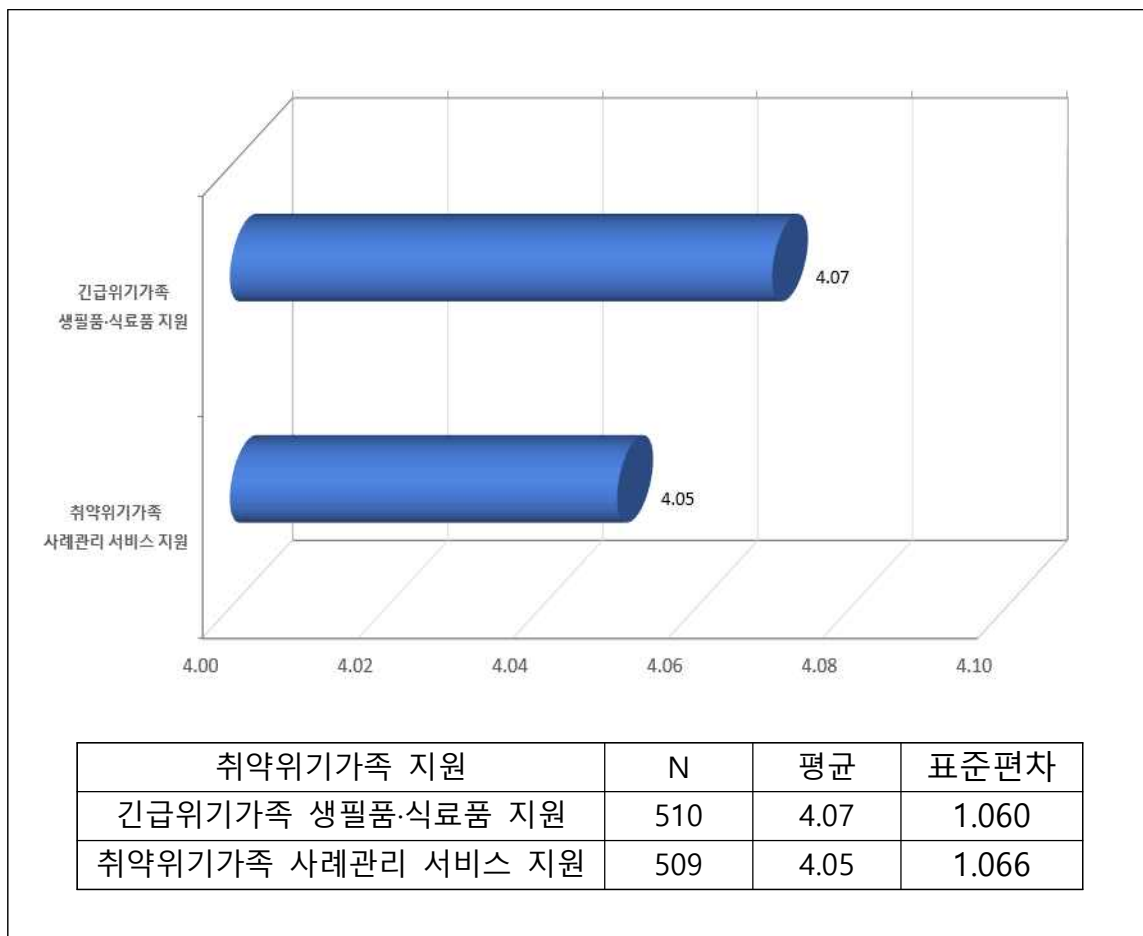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는 요리교실, 정리수납교육, 집수리 등과 같은 가사활동 관련 교육이 4.0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가 활동 지원(3.97점), 부동산·가족경제 관련 교육(3.9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떠나 독립한 청년 1인가구, 가족과 분거하는 남성 1인가구, 홀로 남겨진 노

인 1인가구 등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 요구도로 해석된다. 또한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원이 없는 점, 함께 분담할 파트너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응답한 프로그램 요구도로 유추할 수 있다.

10) 취약위기 가족 지원

취약위기 가족지원으로 제시된 세부 프로그램은 2개였는데, 긴급위기 가족 생필품·식료품 지원이 4.07점이었고,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이 4.05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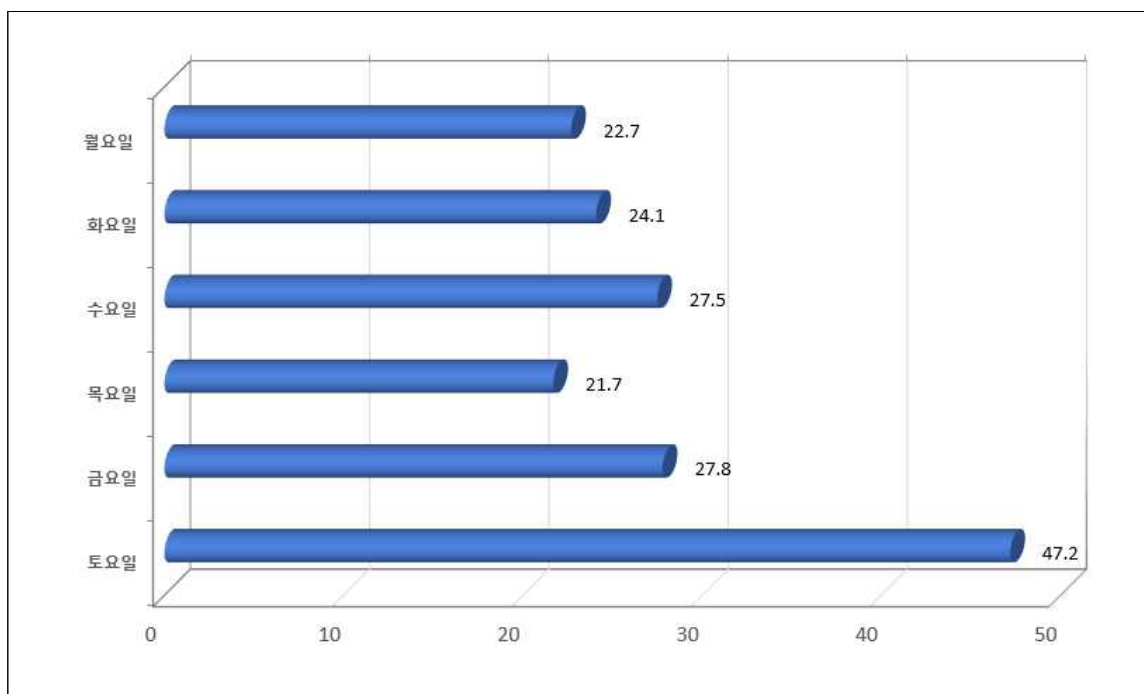
< Ⅲ-44 > 취약위기 가족 지원



11) 프로그램 운영 요일 및 시간 요구도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에 대한 희망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주중에는 요일 별 큰 차이가 없으나 단지 수요일(27.5%)과 금요일(27.8%)에 조금 높은 희망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응답 비중은 주말 토요일(47.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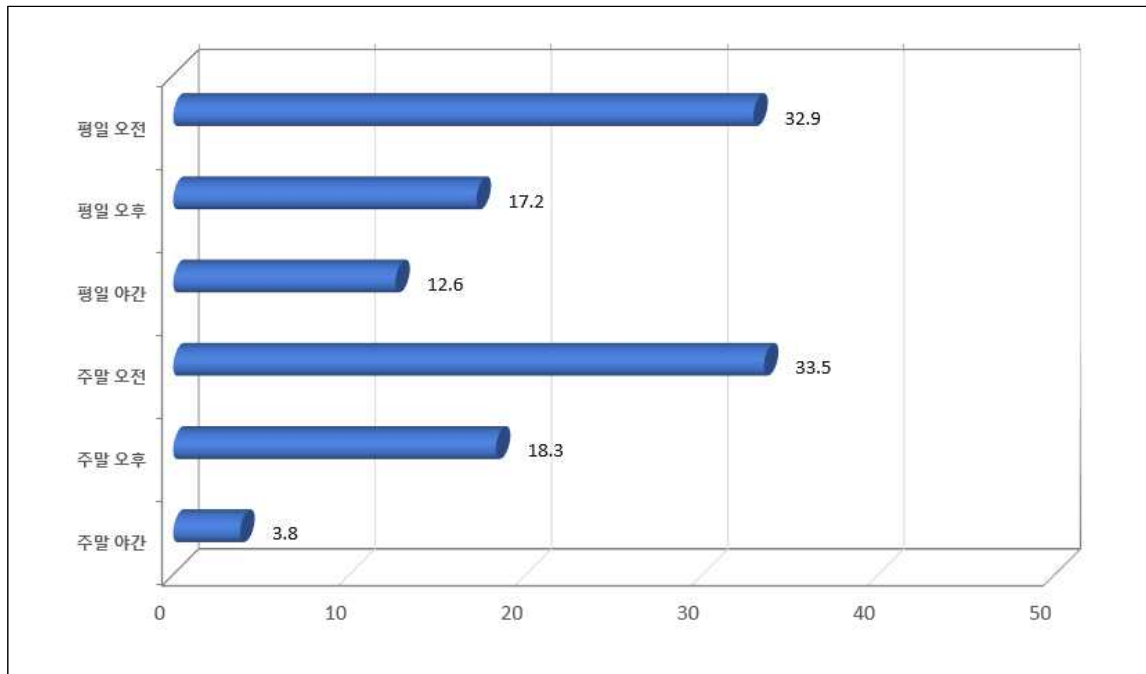
< III-45 > 프로그램 운영 요일 요구도



응답자의 반수 가까이가 주말 토요일 프로그램의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특별히 높았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주말 프로그램의 참여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응답 비중이다.

시간대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평일 중에서는 오전 희망율이 32.9%로 가장 높았지만, 평일 야간에 대한 희망율도 12.6%로 나타나 결코 적지 않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 또는 취업의 상태는

< Ⅲ-46 > 프로그램 운영 시간 요구도



아니지만 배우자 퇴근 후에 배우자에게 자녀를 맡기고 나올 수 있는 응답자들, 또는 청소년 자녀들이 학원에 간 사이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응답자들 등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주말 오전 희망율도 33.5%에 달해 매우 높았지만, 주말 야간의 경우는 3.8%로 평일 야간 시간대(12.6%)와는 오히려 비교될 정도로 작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평일과 주말을 비교한다면, 평일 오전과 주말 오전, 평일 오후와 주말 오후 모두 시간대 희망율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야간 시간대에 있어서만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 상 이미 주말 프로그램의 운영이 활발한 상태이지만,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 여부, 자녀의 연령 기준 생애주기 단계,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의 편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단지 고려해야 할 점은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하여 운영 인력의 현실적인 가용성,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다. 가족센터 직원들의 처우가 타 기관에 비

하여 열악한 상태에서 서비스 대상자만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전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의 복지 역시 장기적인 기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IV. 결론

1. 조사 결과 요약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분석에 사용된 조사 대상자는 총 651명이며, 이 중 여성 응답자가 500명(76.8%), 남성은 150명(23%)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3.8세였고, 거주 지역은 산본 1,2동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부곡동 거주자가 15.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다문화 가족원의 비중이 15.2%를 차지하였고, 비다문화 가족원이 83.7%였다. 응답자들의 군포시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응답자가 45.2%로 가장 많았다. 조사 응답자의 대다수인 87.5%가 현재 기혼이며, 미혼인 경우가 6%, 이혼 상태 3.5%였으며, 사별 2%였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70.3%가 대학교 졸업자, 21.7%가 고졸 이하, 7.2%는 석사학위 이상의 졸업자였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6.8%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외벌이(47.2%)인 경우가 맞벌이(41.6%) 보다 많았다.

가족 유형은 64.8%의 응답자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 1세대로만 구성된 부부가족(21%), 3세대 확대가족 유형(5.2%), 1인가구(4.2%), 한부모가족(2.9%), 조손가족(1.1%)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가 자가(64.7%)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2) 가족센터 이용 경험

총 응답자 651명 중 82.5%에 해당하는 응답자 537명이 군포시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필요에 의해 스스로’라는 응답이 1순위로 가장 많았으며(50.5%), ‘친구, 이웃 등 지인소개’에 의해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26.8%)이 2순위였다. 이용한 프로그램은 과반수(58.7%)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했고, 문화 프로그램

(46.9%), 돌봄나눔 프로그램(22%), 다문화 가족프로그램(13.8%), 상담 프로그램(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 기간은 3명 중 1명 이상이 센터 경험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5명 중 1명 이상은 센터를 3년 이상 장기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는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64.8%)이었고, 2순위는 ‘가족생활에 도움이 됨’(46.4%)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1순위는 ‘프로그램의 다양화’(44.7%), 2순위 ‘이용시간대 확장’(31.5%), 3순위 ‘프로그램 이용 시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14%)으로 나타났다. 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11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실시되는지 몰라서’(72.1%),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6.3%),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5.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가족센터 장기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총 응답자 651명 중 82.5%에 해당하는 응답자 537명이 군포시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을 가진 응답자들이었고, 가족센터를 3년 이상 이용한 응답자는 106명으로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약 20%에 해당하였다.

이들의 성별은 여성이 75.5%였고, 평균 연령은 46.8세였다. 산본 1,2동에 31.1%가 거주하고 있었고, 부곡동(16%), 오금동(13.2%), 당동(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기 이용자의 과반수(56.6%)가 군포시에 10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장기 이용자라고 응답한 사람의 28.3%는 다문화가족이었다.

혼인 상태는 대다수가 기혼(91.5%)이었고, 미혼은 1%도 되지 않았으며, 이혼은 7.5%였다. 센터 장기 이용자의 대다수인 71.7%가 대졸자였고, 전체 응답자와 비교하여 고졸 이하의 비율은 적었으며,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였다.

센터를 장기 이용한 사람들을 전체 응답자와 비교할 때, 자녀 수가 상대

적으로 많은 점을 알 수 있는데, 전체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56.8%였으나 장기 이용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67%에 이르고 있다. 센터를 장기 이용한 사람들의 과반수인 54.7%가 외벌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47.2%보다 많았고, 맞벌이는 39.6%, 기타는 3.8%였다.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71.7%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 19.8%는 부부가족, 7.5%는 한부모가족이었다. 거주 형태는 자가 거주가 70.8%였다.

4)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10대(3.57점) < 60대이상(3.76점) < 30대(4.24점) < 40대(4.25점) < 50대(4.27점) < 20대(4.41점)의 순으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경제활동 상태가 맞벌이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 유형에서는 조손가족(3.57점) < 1인가구(3.79점) < 한부모가족(4.0점) < 3세대가족(4.09점) < 부부가족(4.17점) < 부모+자녀 가족(4.24점)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배우자 만족도의 경우 성별은 남성이 유의미하게 여성보다 높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성향을 보였으며, 맞벌이인 경우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현재 시점에 자녀 없이 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자녀 및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 만족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부부 당사자 간의 관계 만족도는 함께 살고 있는 자녀 및 노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집단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강한 영향력은 아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가족 내 성역할 만족도는 배우자 만족도의 분석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보였다. 남성,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 맞벌이인 경우 유의하게 만족도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외벌이의 가계 특성을 갖는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따라 남성이 시장노동을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가족 내 성역할 만족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일-가정-개인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대만이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다. 30대 집단이 평균 3.92점을 보였고, 40대 4.29점, 50대 3.91점, 60대이상 4.22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4.0세, 여성이 31.5세인 점을 감안할 때, 출산과 육아가 본격화되는 30대에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30대에 저조한 만족도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40대에 증가하는 것으로 것으로 유추되며 50대에 감소했다가 다시 60대 이상에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40대 맞벌이 가족원의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러한 만족도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였다.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가족유형이 모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10대이하(3.57점) < 60대(3.64점) < 50대(3.90점) < 30대(4.0점) < 20대(4.05점) < 40대(4.06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면서 동시에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은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2023년 현재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3.6세이므로 40대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양육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면서 학부모로 진입하는 연령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가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시기로 유추된다. 50대는 평균 출산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의 시기가 포함된 연령대로 가늠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학업 부담과 대학 진학을 위한 몰입으로 인해 가족여가활동이 저조한 시기로 유추되며, 만족도 역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족(3.29점) < 1인가구(3.41점) < 한부모가족(3.84점) < 3세대가족(3.85점) < 부모+자녀 가족(4.0점) < 부부가족(4.05점)의 순으로 높았다. 조손가족, 1인가구는 앞서 살펴본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단이었는데, 가족여가활동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5) 군포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요구도

결혼준비 및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프로그램은 배우자 이해 및 소통법 교육(4.15점)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는 생애주기 단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신혼부부가 이루어야 할 대표적인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인데, 요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양육 관련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4.34점)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취학 전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전인적 발달을 위해, 그리고 영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베이비 요가, 오감놀이, 공예, 음악·미술 놀이 등 사설 기관에서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므로, 가족센터 프로그램의 활용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청소년 자녀 관련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자녀양육 관련 부모교육(4.43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은 어려워지고, 갈등이 내재하게 되며,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의 모색 등이 가족의 발달 과업이 되면서, 요구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분화됨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 단계에서 부모의 역할에 과부하가 올 수 있는 시기이다.

중·장·노년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요리교실, 플라워 테라피, 문화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4.18점)이었다.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는 정리수납교육, 요리교실, 청소년법 등과 같은 가사활동 관련 교육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경제·자산관리 교육이 4.18점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부부사진 촬영 등과 같은 여가 활동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부 상호 이해 교육은 4.19점으로 2순위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하는 연극·영화 관람 등의 문화활동(4.39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요리, 공예, 전래놀이 등과 같이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4.36점), 아버지

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4.3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서는 결혼이민자 당사자 보다는 그들의 자녀 프로그램에 더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언어 발달, 교육, 진로 등에 지원 필요성을 보였다. 시민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위한 학습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다문화가족 응답자를 따로 케이스 선택하여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세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4.34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1순위 응답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순위는 결혼이민자 동아리, 자조모임 지원(4.32점)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가 낮은 순위를 주었던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요리교실, 정리수납교육, 집수리 등과 같은 가사활동 관련 교육이 4.0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가 활동 지원(3.97점), 부동산·가족경제 관련 교육(3.9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위기 가족지원으로 제시된 세부 프로그램은 2개였는데, 긴급위기 가족 생필품·식료품 지원이 4.07점이었고,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이 4.05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에 대한 희망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반수가 가까이가 주말 토요일 프로그램의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특별히 높았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대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평일 중에서는 오전 희망율이 32.9%로 가장 높았지만, 평일 야간에 대한 희망율도 12.6%로 나타나 결코 적지 않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2. 센터 운영을 위한 제언

1) 기관의 정체성과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동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센터가 추구해야 할 기관의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기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법적 근거이다. 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 기획되는 프로그램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에 준용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군포시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선택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하였고(1순위), 가족생활에 도움이 되며(2순위), 셋째, 직원들이 친절하다(3순위)는 응답을 보였다. 가족센터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는 ‘내용의 적절성’과 이를 통해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직원들은 ‘친절’하였다는 이용자들의 응답은 지금까지의 군포시 가족센터 운영이 기관의 정체성과 서비스 목적에 매우 부합하였음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포시 가족센터의 운영이 기관의 목표에 합목적적이었다 하더라도 가족센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제시한 보완 사항들을 눈여겨 보고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44.7%), ‘이용시간대 확장’(31.5%),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12.8%)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성해야 할 것인가?

첫째, 가족센터가 추구해야 할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창의적인 신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의미한다. 사실 가족센터의 인력, 예산, 시간이 한정된 상태에서 창의적인 신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족센터가 보유한 지역사회 내 전문강사, 학계 전문가, 그 외의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속의 과정이 도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

의는 새로운 트렌드와 이슈를 파악하게 하고, 프로그램 간의 콜라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협업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타 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가족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변형시키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고, 서로의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들이 제시한 ‘이용시간대 확장’은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찾아가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 상 이미 주말 프로그램의 운영이 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 여부, 자녀의 연령 기준 생애주기 단계,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의 편성이 적절한 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용 시간대의 확장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하여 운영 인력의 현실적인 가용성,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안전의 문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가족센터 직원들의 처우가 타 기관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에서 서비스 대상자만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전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의 복지 역시 장기적인 기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예산과 인력의 제약 하에서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의 작업이 필요하다. 모니터링과 환류는 여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센터의 평가 지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가족센터 평가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 중 하나는 모니터링과 환류의 작업이 가족센터의 공동체적 역량과 직원들의 동기 여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의 메모, 일지, 결과 보고가 형식적일 때에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좋은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추진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마감하면서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에서부터 어떻게 변형 및 발전시켜야 하는지, 다른 유사 프로그램의 수행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센터의 다음 해 사업 기획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를 모색해야 하고, 이를 센터의 구성원 및 간부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비판적 관점의 모니터링과 적극적 변화를 추구하는 환류는 클라이언트가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센터 직원들의 공동체적 비전과 동기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2) 조사의 체계성

서비스 이용자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며, 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와 같은 요구도 조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와 연구는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포 시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적절한 표본의 구성이 필요하며, 조사 의도에 따른 의도적 쿼터 할당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 과정은 체계적이며 전문적이어야 한다.

조사의 수단이 되는 질문지는 군포 시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안에는 특히 가족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변인들이 중요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현재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세대 구성, 가족의 유형 등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의 생애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첫 자녀의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변인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의 기능, 레질리언스, 역량 등과 같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가 이미 검증된 적절한 질문 척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질문지는 언제나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센터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표집에 주의해야 하고, 충분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지역적 쿼터 할당을 통해 군포시의 지역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연령층 대상의 웹 서베이와 중장년층 대상의 대면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미이용자가 많은 성, 연령층, 가족생애주기, 특정 가족유형 등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양적 조사의 경우 자료의 정밀한 코딩과 통계 처리를 위한 입력의 과정

역시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정교하게 진행되어야만 다양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군포시 가족의 변화를 통계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경기도 전체 혹은 전국 단위와 비교 가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군포시 가족의 변화를 일정 단위로 학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3) 장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센터 이용자 중 현재의 40대(50%)~50대(19.8%) 중장년층이 센터를 가장 오래 이용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비율이 높았고, 과반수인 67%가 자녀가 2명 이상이라고 말하여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54.7%가 외벌이였으며, 맞벌이는 39.6%였다. 71.7%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 19.8%는 부부가족, 7.5%는 한부모가족이었다.

특히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진 한부모가족들이 센터의 서비스를 3년 이상 이용하면서 장기 이용자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경제활동과 양육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센터가 제공한 상담, 체험, 교육,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기관을 운영해 온 직원들의 노고와 기관의 역량이 드러나는 측면이기도 하다.

센터 이용자들은 단기 이용자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중장기 이용자들로 남는 특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센터가 지속적으로 신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였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현재의 중장기 이용자와 센터에 신규 입문한 이용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센터 장기 이용자 중 맞벌이의 비중이 40% 가까이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비롯하여 맞벌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평일 저녁 혹은 주말에 개설됨은 물론이고, 그 운영이 효과적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맞벌이들이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센터는 이들의 향후 생애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하는 중장기적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녀 2명 이상의 40~50대, 고학력의 특성을 갖는 이들이 생애주기를 이행하면서 노년층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이 생애주기를 이행하면서 향후 겪게 될 가장 큰 문제는 가계 재무의 문제일 것이다. 학업적 뒷바라지와 노부모의 부양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전히 필요하다. 관건은 가계 재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뉴 콘텐츠의 개발이다. 가계 재무관리를 주로 강의하는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센터 장기 이용자의 40%를 차지하는 맞벌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특히 2023년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4.0세, 여성이 31.5세인 점을 감안할 때, 출산과 육아가 본격화되는 30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30대의 일-가정-개인의 균형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0대에 저조한 만족도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40대에 증가하는 것으로 것으로 유추되며 50대에 감소했다가 다시 60대 이상에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30대 맞벌이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위한 일-가정-개인의 균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센터가 보완해야 할 사항 중 3순위가 3순위 ‘프로그램 이용 시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14%)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프로그램 진행 시 자녀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단,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관 간 조정과 협의, 그리고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현재의 가족센터는 전신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된 형태이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족센터의 모든 사업이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기조이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양한 가족 내에서도 그 예산이나 사업 비중이 타 유형의 가족보다 월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다문화가족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6.3%였으나 장기 이용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육박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비스를 경험한 다문화가족에게 심화되고 증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장기적인 이용자로 자리 매김한 것으로 보여진다.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는 차이가 있었다. 비다문화 응답자들의 경우 결혼이민자 당사자 보다는 그들의 자녀 프로그램에 더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언어 발달, 교육, 진로 등에 지원 필요성을 보였다. 비다문화 응답자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위한 학습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결혼이민자 동아리, 자조 모임 지원이 2순위로 나타나 다소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에 대해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은 가장 낮은 순위의 요구도를 보였다. 실제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나타난 납득 가능한 견해의 차이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센터를 3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는 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기획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대상의 요구 파악이 보다 면밀히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문화와 비다문화 사업 간의 균형과 서비스 대상자들이 느끼는 공정성의 문제이다. 인구 대비 예산의 할당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인구모집단에서 보자면 비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가족정책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다양한 가족의 유형 중에서도 편중성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센터의 운영 입장에서는 다문화와 비다문화의 통합적 기류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유형 중 소외되는 유형이 없도록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는 포용적 관점이

필요하다.

5) 체험 및 활동에 기초한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는 10개 영역별로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질문하였는데, 4개 영역에서 체험 및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양육 관련 프로그램, 중·장·노년기 프로그램,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기능적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 하에서 체험 및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험 및 활동에 기초한 여가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생활 만족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60대(3.64점) < 50대(3.90점) < 30대(4.0점) < 20대(4.05점) < 40대(4.06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5$).

응답자가 낮았던 60대의 경우 대부분 은퇴를 경험한 세대이므로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여가를 함께 공유할 가족원의 부재 등이 큰 이유가 될 것이다. 50대는 현재 우리사회의 평균 출산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의 시기가 포함된 연령대로 가늠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학업 부담과 대학 진학을 위한 몰입으로 인해 가족 여가활동이 저조한 시기로 유추되며, 만족도 역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생활 만족도 결과에 기반하여 50~60대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개인 및 가족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체험 및 활동에 기초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 다양하다. 그러나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체험 및 활동에 기초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타 기관과 차별화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목적이 체험, 활동, 여가를 통해 가족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의 해소와 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 서비스의 목적은 달성하되 그 수단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프로그램의 수행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조손가족은 그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인가구, 한부모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조손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의 순으로 만족도가 저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손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조부모가 겪는 신체적인 질병의 어려움, 그리고 손자녀들의 학업적 지원이 어려운 어려움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족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조손가족이 지닌 레질리언스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될 때 조손가족의 레질리언스는 더 큰 증폭적 향상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1인가구, 한부모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일 것이다.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기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체험, 활동, 여가 역시 중요하다.

7) 1인가구 사업의 추진

인구 모집단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눈에 띄게 혁혁하다. 23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이고 경기도는 31.2%, 군포시는 29.8%임을 감안할 때, 1인가구의 사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는 요리교실, 정리수납교육, 집수리 등과 같은 가사활동 관련 교육이 4.0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가 활동 지원(3.97점), 부동산·가족경제 관련 교육(3.9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떠나 독립한 청년 1인가구, 가족과 분거하는 남성 1인가구, 홀로 남겨진 노인 1인가구 등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 요구도로 해석된다. 또한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원이 없는 점, 함께 분담할 파트너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응답한 프로그램 요구도로 유추할 수 있다.

1인가구 사업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이 칩거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동참하고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 그러나 1인가구 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모집단의 규모는 크지만 사업 대상자의 모집이 특히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인가구의 연령대 규모가 크고 사회 경제적 배경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경기도의 현재 조직도를 살펴보면, 가족정책과 내에 1인가구 지원팀이 존재한다. 가족정책과 내에 1개의 팀으로 존재할 만큼 1인가구 정책이 중요한 가족정책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센터 장기 이용자 중 미혼은 1%도 되지 않았는데, 이는 1인가구 사업 혹은 가족 내 성인 자녀 대상 사업이 그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향후 비혼 성인 및 1인가구를 겨냥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8) 홍보

‘현수막, 홍보지, 캠페인 등’을 보고 센터의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8.8%였고, ‘SNS, 블로그 등’을 보고 찾았다는 응답자는 8.6%로 나타나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홍보 효과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홍보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시청 등 공공기관의 권유’를 통해서 그리고 ‘신문기사, 방송,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센터를 찾게 되었다는 시민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노력 역시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센터 미이용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정보가 부재해서 센터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시민들의 응답이 1순위였으므로 센터가 앞으로도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앞에 제시한 센터 이용자들이 센터를 찾게 된 이유 중 적지 않은 비중이 센터의 홍보를 통해서였는데, 센터를 찾지 않은 이유 역시 홍보라는 점에서 볼 때 홍보는 언제나 중요한 사업의 도구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과 사업은 그 목적과 내용만큼 홍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센터가 홍보를 잘 해온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도 도출되

있으므로 센터는 홍보에 지속적으로 주안을 두어야 한다. 홍보는 아무리 노력하고 주력해도 과함이 없는 영역이다.

NO.

2024년 군포시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군포시가족센터는 군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경험과 추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가족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요구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사항은 프로그램 발전 및 개선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 처리에만 사용되며, 조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태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군포시가족센터장

문의 : 군포시가족센터
가족교육문화팀 팀장 은현주 (031) 392-1811

1. 기초 정보 및 일반 사항: 답변은 응답 □란에 체크(✓)표 해주시고, 직접 기입할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 ② 여		2. 연령 만 _____ 세	
3. 거주지역 군포시 (_____) 동		4. 태어난 곳의 국적 ☐ ① 대한민국 ☐ ② 중국 ☐ ③ 베트남 ☐ ④ 일본 ☐ ⑤ 기타(_____)	
5. 군포시거주기간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3년 미만 ☐ ③ 3년 이상~5년 미만 ☐ ④ 5년 이상~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			
6. 혼인상태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기타(_____)			
7. 학력 ☐ ① 고졸 이하 ☐ ② 대졸 ☐ ③ 대학원졸 이상			
8. 자녀유무 ☐ ① 없음 ☐ ② 있음		9. 자녀 수 _____ 명	
10. 경제활동형태 ☐ ① 남편 또는 아내만 경제활동 ☐ ② 부부 모두 경제활동 ☐ ③ 기타(_____)			
11. 가족유형 ☐ ① 부부가족 ☐ ②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③ 한부모 가족 ☐ ④ 조손가족 ☐ ⑤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 ☐ ⑥ 독신(1인 가구) ☐ ⑦ 기타(_____)			
12. 주택형태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_____)			

1	군포시가족센터(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문항 3번으로 이동)
1-1	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에 의해 스스로 ☐ ② 신문기사, 방송, 라디오 등 ☐ ③ 친구, 이웃 등 지인 소개 ☐ ④ 시청 등 공공 기관 권유 ☐ ⑤ SNS, 블로그 등 ☐ ⑥ 현수막, 홍보지, 캠페인 등 ☐ ⑦ 기타()
1-2	이용하신 프로그램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가능) ☐ ① 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부부교육, 중장년기 및 노년기교육, 아버지교육, 문화다양성이해교육, 50+ 교육 등) ☐ ② 문화프로그램(어울림축제, 에나바다 장터, 가족사랑의 날, 가족나들이, 가족문화체험, 명절프로그램 등) ☐ ③ 상담프로그램(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부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다문화 혁령기자녀 상담 등) ☐ ④ 돌봄나눔 프로그램(가족품앗이, 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1인가구명원안성동행서비스 등) ☐ 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취업교육, 한국어교육, 방문학습지,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등)
1-3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3년 미만 ☐ ③ 3년 이상~5년 미만 ☐ ④ 5년 이상
1-4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하다. ☐ ② 강사가 전문적이다. ☐ ③ 다른 기관에 비해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 ④ 가족생활에 도움이 된다. ☐ ⑤ 센터이용이 편리하다. ☐ ⑥ 직원들이 친절하다. ☐ ⑦ 기타()
2	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용시간대 확장 ☐ ②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 ☐ ③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 ☐ ④ 교통 편리성 향상 ☐ ⑤ 프로그램 이용 시 자녀 돌봄 서비스제공 ☐ ⑥ 기타()
3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신 적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시되는지 몰라서 ☐ 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③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④ 실시장소가 멀어서 ☐ ⑤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⑥ 기타()

Ⅲ. 가족생활만족도 및 인식조사: 해당하는 영역에 체크(✓) 또는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해당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우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3	아동 및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4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5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6	일-가정-개인의 균형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7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8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 ☐ ② 정서적·심리적 지원 ☐ ③ 함께 보내는 여가활동 ☐ ④ 기타()					
9	아동 및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자녀양육관련 교육 및 상담 ☐ ② 정서적·심리적 지원 ☐ ③ 자녀양육코칭 ☐ ④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 ⑤ 대화법, 의사소통방법 ☐ ⑥ 기타()					
10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세대 간 이해 교육 ☐ ② 정서적·심리적 지원 ☐ ③ 함께 보내는 여가활동 ☐ ④ 기타()					
11	가정 내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성인지 교육 ☐ ② 성인지 체험 활동 ☐ ③ 가사생활 교육 ☐ ④ 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 ⑤ 기타()					
12	일-가정-개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일-가정-개인의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 ② 여가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 ③ 실 가사 활동에 필요한 생활교육 ☐ ④ 기타()					
13	가족여가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영화, 연극, 전시 등 가족문화활동 지원 ☐ ② 가족캠프 ☐ ③ 가족봉사단 참여 ☐ ④ 이웃 가족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 ⑤ 기타()					

Ⅳ. 프로그램 요구도조사: 다음은 군포시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에게 필요한 정도를 선택하여 체크(✓) 해 주세요.

번 호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다소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결혼준비 및 예비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자아탐색 및 배우자 탐색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신혼(예비)부부 맞춤 재무교육	①	②	③	④	⑤
		신혼(예비)부부에게 필요한 성교육	①	②	③	④	⑤
		건강한 결혼과 가족가치관 확립교육	①	②	③	④	⑤
		함께하는 여가프로그램(커플요가, 요리, 만들기 등)	①	②	③	④	⑤
		배우자 이해 및 소통법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영유아 양육 관련 프로그램	영유아 양육 관련 부모교육 (영유아 발달 이해, 자녀 성교육, 베이비 사인 등)	①	②	③	④	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베이비 요가, 오감놀이, 공예, 음악·미술놀이 등)	①	②	③	④	⑤
		자녀 양육 관련 상담 (훈육법, 가족 내 역동 이해, 자녀학습법 등)	①	②	③	④	⑤
		자녀 양육 스트레스 해소법	①	②	③	④	⑤
3	아동· 청소년 자녀 관련 프로그램	자녀 양육 관련 부모교육 (기질에 따른 양육법, 놀이법, 자녀 발달 이해, 의사소통법 등)	①	②	③	④	⑤
		아동기 자녀 학습코칭 및 독서지도법	①	②	③	④	⑤
		자녀 일상생활지도 교육(스마트폰 과다사용, 과도한 게임, 미디어 중독, 온라인 중독 등)	①	②	③	④	⑤
		자녀 양육스트레스 해소법	①	②	③	④	⑤
		자녀 양육 관련 상담 (양육태도, 기질이해, 훈육법, 사춘기 지도 등)	①	②	③	④	⑤
4	50+ (중·장·노 년기) 프로그램	중·장년기 심신 변화 이해 교육(갱년기 등)	①	②	③	④	⑤
		중·장년기 가족변화의 이해교육 (성인기 자녀 관계, 노후 준비 등)	①	②	③	④	⑤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금정훈육, 손유화, 어유식 등)	①	②	③	④	⑤
		요리교실, 플라워 테라피, 문화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노부모 케어를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번 호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다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5	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가정경제·자산관리교육	①	②	③	④	⑤
		가사 활동 관련 교육(정리수납교육, 요리교실, 청소법 등)	①	②	③	④	⑤
		일-가정양립교육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이해 및 다문화가족 인식개선교육	①	②	③	④	⑤
6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부부 상호 이해 교육	①	②	③	④	⑤
		부부상담, 부부들의 집단상담	①	②	③	④	⑤
		건강한 부부역할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여가 활동 관련 교육 (요리교실, 부부사진촬영 등)	①	②	③	④	⑤
		부부의날 기념 특별프로그램 부부 워크숍(치유명상여행 등)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연극·영화 관람 등 문화활동	①	②	③	④	⑤
		가족 대상 교육 또는 워크숍(의사소통, 세대이해 등)	①	②	③	④	⑤
		1박 2일 가족캠프	①	②	③	④	⑤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요리, 공예, 전래놀이 등)	①	②	③	④	⑤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가족 상담, 성격유형검사 등	①	②	③	④	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목공, 과학놀이, 신체놀이, 요리교실, 보드게임 등)	①	②	③	④	⑤
8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육	①	②	③	④	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방문학습지, 교육활동비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결혼이민자 한국정착지원 (한국어교육, 취업준비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결혼이민자 동아리, 자조모임 지원	①	②	③	④	⑤

번 호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다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9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부동산·가사경제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여가 활동 지원(영화, 연극, 목공교실 등)	①	②	③	④	⑤
		가사 활동 관련 교육(요리교실, 정리수납교육, 집수리 등)	①	②	③	④	⑤
		자조모임·동아리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1인가구병원연심동행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0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위기가족 생필품·식료품 지원	①	②	③	④	⑤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⑤

11. 위의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입해 주세요.
()

12. 다음은 참여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 □란에 체크(✓) 또는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	야간 7시~9시

13. 센터와 프로그램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